

10  
2022  
VOL. 316

# 한인뉴스

haninnewsinni@gmail.com



재인도네시아한인회  
[www.innekorean.or.id](http://www.innekorean.or.id)



**BE  
THE FIRST  
MOVER**



**KMK GROUP**

# Hyundai STARGAZER

Bintang baru keluarga.



## Test drive now.

※ 가까운 쇼룸에서 시승 하실 수 있습니다.

### 현대 어슈런스 프로그램\* (2022년 12월 말까지 구매고객 대상)

- 사고시 신차 교환\* (7년내 75%이상 차량 전손 시)
- 고객 안전 프로그램\* (7년내 사고시 1인당 최대 1억 루피아 7명까지 치료비 지원)
- 잔존가치 3년 70% 보장\*
- 금융 안전 프로그램\* (7년내 사고로 인한 경제능력 상실 시 잔여할부금 면제)

\*자세한 사항은 현대차 홈페이지 및 가까운 딜러 또는 콜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 금융 프로그램

- 유예 할부 (~3년):
    - 월 납입금 최저 2.4 Juta
    - 차량 가격 50% 만기 시 상환
  - 장기 저이자 할부 (~7년):
    - 월 납입금 최저 3.1 Juta
  - 저선수금 할부
    - 초기 선수금 최저 40 Juta
- ※ 금융상담: Sunindo K2B Finance, 신한은행

### 특별 구매 혜택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 초청\*

\*7월-9월 구매고객 대상 3명 추첨



**3+1 YEARS WARRANTY**  
Free 1000 km

**3+1 YEARS FREE SPARE PARTS**  
Free 1000 km

**5 YEARS FREE MAINTENANCE**  
Free 1000 km



## 월간 한인뉴스 10 2022



표지사진: 대한민국 경상북도 영주시 선비촌  
2022. 9

### 한인뉴스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호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 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인뉴스발행인 박재한 배상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발행처**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발행인** 박재한

**편집인** 김희년

**논설위원** 신성철

**편집장** 홍석영

**편집위원** 최인실, 이영미, 조은아

**표지** 편집국

**디자이너** Diki Satria Nugraha

**인쇄** 알림인도

**전화** (021) 521-2515, 527-2054

**팩스** (021) 526-8444

**주소**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이메일** haninnewsinni@gmail.com

**웹사이트** <http://www.innekorean.or.id>

## 6

신성철 논설위원 칼럼

“한-인니 수교 50년을 넘어 CEPA를  
통한 새로운 100년을 향해”

## 9

한인회 소식

## 10

김재훈의 ‘세무 TALK’

– 자카르타주정부 지방세 할인 및  
벌금면제 이벤트

## 12

배동선작가의 인도네시아

현대사 이야기 58

## 16

월간 뉴스 브리핑

〈데일리 인도네시아〉



# contents

2022. 10. 통권 316호

- 20 문법왕 <민선희>
- 24 자카르타 맛집탐방  
TASTE PARADISE  
<주윤지>
- 26 103회 울산 전국체전  
재인도네시아선수단 출정식
- 27 경남자카르타 사무소,  
하동차엑스포 홍보 부스 운영
- 28 [떠나야 보이는 것들]  
이방인으로서 다름을 바라보는  
자세 <손예리>
- 30 “인도네시아어, 현지인처럼  
못 해도 괜찮아요” <조연숙>
- 34 Batavia 그리고  
Cafe Batavia <조은아>
- 39 ‘2022년 한국 문화의 달’  
대면 개최
- 40 두 개의 시선 – 이렇게 좋은 걸기!  
안 할 수가 있나요?  
<헬른 하르소노>
- 42 행복에세이  
-‘빨리빨리’에 대한 고찰 <김준규>
- 44 계단 <이세림>
- 48 [열두 달의 식물칼럼 12]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나  
<권영경>
- 52 BBJA 농구 동호회 소식
- 54 남반구 별 이야기 <장윤영>
- 57 한-인니 작가 교류
- 58 반려동물, 랜선집사
- 59 국악과 공예의 만남 ‘K-Maestro’
- 60 제대로 이해하는 인도네시아 고유명사  
<민선희>
- 64 인도네시아 법률해설(314)  
- 분쟁 해결 방법(2) <이승민>
- 66 생활정보



논설위원 신성철

## “한-인니 수교 50년을 넘어 CEPA를 통한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내년 2023년은 한국-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이다. 1973년 대사급 외교관계가 공식적으로 수립되기 이전, 자카르타에 1964년에 코트라(KOTRA) 사무소를 개소했고, 1966년 주인도네시아 총영사관을 개설했다.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 양국 관계는 2006년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되었고, 2017년 11월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발전했다.

무엇보다 한-인도네시아 관계의 핵심적인 동력은 경제 분야이다. 양국 수교 이전인 1968년에 대한민국 최초로 한국남방개발(KODECO, 코테코)을 통해 해외직접투자(FDI)가 이루어져, 인도네시아와 50여년 동안 상호보완적인 경제협력을 강화해왔다. 그리고 양국 경제사의 기념비적인 이정표는 2020년 12월에는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합의, 이어 대한민국 국회는 2021년 6월에, 인도네시아 의회는 지난달인 2022년 8월 30일에 CEPA 비준을 각각 완료함으로써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의 100년을 향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회가 편찬한 ‘인도네시아 한인 100년사’에 따르면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여년 전인 1920년에 독립운동가이자 인도네시아 한인 1호인 장윤원 선생이 바타비아(현 자카르타)에 도착했다. 즉 본격적인 인도네시아 한인 역사의 시작은 100년이 넘는 셈이다. 일제 강점기에는 조선인 군속과 위안부들이 인도네시아 땅을 밟았으며,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일부는 잔류해 인도네시아에서 한인 역사의 맥을 이어갔다. 1960년대 후반에는 코테코를 필두로 인도네시아 투자가 이어지면서 경제와 비즈니스 분야의 본격적인 협력이 이어졌다. 투자 초기부터 현재까지 한인기업 진출 역사를 크게 나누다면 4단계로 볼 수 있다. 즉, 각각의 출발점이 1968년, 1988년과 1998년이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인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부터 인도네시아 한인기업 진출의 네 번째 출발점이 될 것이다.

한국기업의 제1단계 진출기는 1960년대 후반. 수하르토 정부는 도탄에 빠진 경제를 살리고 산업화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자국의 최대 자원인 광물과 원유, 산림 부문의 개발 정책을 입안하기 시작했다. 때마침 우리나라는 제2차 5개년 계획을 막 시작하는 시기로 목재와 석유, 사탕수수 등 원자재 확보가 필요했다. 코테코가 현지에 진출한 이후 코린도(Korindo) 등 원목개발 기업이 속속히 진출했다. 종합상사와 건설업, 제조업 등의 진출도 이어졌다.

제2단계 진출시기는 인도네시아가 1980년대 후반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시작된다. 1988년부터 한국의 노동집약적 산업인 봉제와 신발 그리고 1990년대 초 전자산업 등이 진출하고 한국의 기아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이 대거 진출한다. 1990년 이후 LG전자, 삼성전자, CJ 등 대기업 진출에 이어 자동차, 철강, 금속, 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 투자 및 삼성화재 등 서비스업이 동반 진출했다.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구조조정계획으로 촉발된 32년 철권통치 수하르토 정권의 붕괴로 기아자동차 등 한국 대규모 투자기업이 철수하는 쓰라린 경험을 겪어야 했다.

인도네시아가 5년 동안 혼란의 과도기를 거친 후, 2004년 최초로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정국과 치안이 안정되고 대(對)중국 자원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연 평균 6%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 유도요노 정부는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을 폈고, 투자도 크게 증가하면서 호황을 구가했다. 인도네시아의 개혁시대인 1990년대 말부터 2022년 현재까지 20여년 동안 우리 기업은 제3단계 진출 시기를 맞이하며 중화학공업, 유통, 금융, 법률, 정보통신기술(ICT), 방산 및 한류와 관련된 상품과 콘텐츠 산업 등 자본과 기술집약적 산업이 진출한다.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서명식  
2020.12.18.(금) 서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던 2020년부터 양국 정부는 CEPA 논의를 재개해 합의를 끌어냈으며, 의회는 비준을 완료해 미래 경제협력 동반자로서 맞손을 잡았다. 조만간 발효를 앞둔 한-인도네시아 CEPA는 양국의 시장을 개방한다는 의미에서 ‘자유무역협정’인 FTA와 비슷한 협정이다. 하지만 CEPA는 상품과 서비스 교역, 투자 등 무역 확대에 무게를 둔 FTA에 비해 정부 간 경제 협력 및 인적·문화적 교류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의 경제협정이다. CEPA는 주로 선진국과의 경제협력을 원하는 개발도상국이 선호하는 방식인만큼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협정이다.

두 나라는 한·아세안 FTA를 통해 어느 정도 시장을 개방한 상태지만 CEPA가 발효되면 관세 철폐 수준은 더 올라가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CEPA 발효 시 한국은 전체 품목 중 95.8%, 인도네시아는 94.8%의 관세가 사라진다. 특히 철강, 플라스틱 및 자동차 부품류가 큰 수혜를 보게 된다.

인도네시아는 자동차 강판용 철강 제품(5~15%)과 자동차용 스프링(5%), 베어링 등 기계 부품(5%), 의류(5%) 등을 한국에서 수입할 때 관세를 없애게 된다. 트랜스미션과 선루프(5%), 정밀화학제품(5%) 등도 즉시 또는 5년 이내에 무관세를 적용한다. 반면 한국은 병커C유(3~5%)와 정밀화학원료(5%), 원당(3%), 맥주(15%) 등에 대해 즉시 또는 5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민감한 부문인 농·수·임산물은 현재 개방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전쟁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밸류체인(GVC, Global Value Chain, 가치사슬)이 재편되면서 탈중국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혼돈의 시대에 자원부국이며 잠재력이 큰 내수시장을 갖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GVC의 지각변동의 수혜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의적절한 CEPA 발효는 양국 간 경제협력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KCC글라스, 롯데케미칼 등 한국 첨단산업 대기업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사업, 제약 및 한류 관련 산업 부문도 인도네시아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인도네시아도 지난 2020년 11월 고용창출법(일명 유니버스법)을 제정해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혁하여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에게 문호를 활짝 열었다.

평균연령 29세이며 세계 제 4위 인구대국인 인도네시아는 생산시장이자, 중산층이 확대되고 있는 거대한 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 제조업의 기술력이 인정받고, 한류로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우리나라의 국격이 또 한번 상승했다. CEPA를 통해 양국 관계가 현재의 황금기를 넘어 공동번영을 향한 미래 동반자로의 관계로 새롭게 도약해 나갈 것이며, 한-인도네시아 50년의 우정을 넘어 100년지기 미래 동반자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끝)



## 우리 파이낸스 인도네시아 서혁진 법인장, 한인회 방문



9월 7일, 우리 파이낸스 인도네시아(Woori Finance Indonesia) 서혁진 법인장이 한인회를 방문하여 박재한 한인회장과 담소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서법인장은 9월 19일 우리 파이낸스 인도네시아 개소식을 알렸다. 인도네시아에서 첫걸음을 내딛는 우리 파이낸스 인도네시아의 성장을 위한 노력을 듣고 박재한 한인회장은 한인사회의 전반에 걸친 상황 등의 대화를 이어갔다.

## 박태성 대사 송별회



2020년 10월부터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로 한인동포와 함께 한 박태성대사가 그 소임을 다하고 한국으로 귀국하기에 앞서 9월 25일, 재인도네시아한인회(회장 박재한)와 땅그랑 소재 한식당에서 송별회를 가졌다. 박대사와 그 자리에 참석한 한인회 임원들은 함께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 했던 시절을 회상하고, 서로에게 아쉬움과 고마움을 전하며 석별의 정을 나눴다.

## 추천해 주세요!

12월 7일에 열릴 2022년 한인회 <송년의 밤> 행사의 주역인 **‘자랑스러운 한인상’**의 수상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숨겨진 영웅이 있다면 한인회로 연락하여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우리의 이웃에게, 보다 많은 한인이 다함께 감사의 박수를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8 자랑스러운 한인상 수상자  
헤븐스 멤버스 박한미회장



# 자카르타 주정부 지방세 할인 및 벌금 면제 이벤트^^

글: 김재훈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 1. PBB 납부시 할인 혜택 (DKI 만 해당)

PBB(Pajak Bumi Bangunan) 토지 건물세 즉 토지 및 건물을 보유함으로써 발생되기 때문에 토지 건물 보유세라고도 하고 한국식 표현으로는 재산세에 해당되어 재산세로 번역하기도 한다. PBB는 지방세로서 각 지역별로 납세기한, 세율 등이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PBB로 이야기를 하지만 PBB-P2로도 표현하는데 PBB-P2는 Pajak Bumi Bangunan Perdesaan dan Perkotaan으로 농촌 및 도시의 토지건물세라고 할 수 있다.

아래 내용은 자카르타(DKI)에만 해당되며 타 지역은 해당되지 않는다.

자카르타의 경우 2022년도 PBB 납부 기한은 2022년 12월 9일까지이며, <https://pajakonline.jakarta.go.id/esppt> 에 접속하여 Daftar E-SPPT PBB를 click 하여 고지서를 출력할 수 있다. 출력물에는 고지서, 안내문 및 연도별 납부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안내문에는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금액의 월 2%가 행정과태료로 부과되며 최대 48% (24개월)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지된 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3개월이전까지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세율은 공시지가(NJOP)를 기준으로 2억루피아 이하의 경우 0.01%, 2억에서 20억루피아의 경우 0.1%, 20억 이상 100억루피아 미만의 경우 0.2%, 100억루피아 이상시 0.3%의 PBB 가 부과된다. 상기와 같이 안내하고 있는데 조기 납부에 대한 할인 여부등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렇지만 DKI 자카르타 주지사 규정(Pergub)으로 금년 6월부터 8월까지 PBB를 납부할 경우 15% 할인, 9월부터 10월 납부시 10% 할인, 11월 납부시 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 납세자(법인이 아님)의 경우 NJOP(공시지가) 가 20억루피아 미만의 경우에는 PBB 를 면제 받고, NJOP가 20억루피아 이상이지만 토지면적 60m2 이하 및 건축면적 36m2 이하에 대해서도 PBB 가 면제된다.

## 2. 지방세 (Pajak Daerah) 벌과금 삭제 규정(DKI 만 해당) :

(Surat Keputusan Bapenda DKI Nomor 1558 Tahun 2022)

지난 9월 15일자 Kompas News에서 “Pemprov DKI Hapuskan Sanksi Administrasi Pajak Daerah Mulai 15 September-15 Desember” 자카르타 주정부는 9월 15일부터 12월 15일 까지 지방세에 대한 과태료는 삭제한다는 기사를 실었다.

관련 규정은 Surat Keputusan Kepala Badan Pendapatan Daerah (Bapenda) DKI Jakarta Nomor 1558 Tahun 2022 tentang Penghapusan Sanksi Administrasi Pajak Daerah.로 되어 있다.

1. 2022년 9월 15일부터 2022년 12월 15일까지 지방세 원금을 납부한 납세자로서

2. 다음 각 세목의 지방세 행정과태료 삭제

- 호텔세(Pajak Hotel), 레스토랑세(Pajak Restoran), 유흥세(Pajak Hiburan), 주차세(Pajak Parkir), 자동차연료세(PBBKB), 자동차 양도세(BBNKB), 토지 및 건물 취득세(BPHTB), 자동차세(PKB), 광고세(Pajak Reklame), 재산세(PBB-P2), 지하수세(PAT)

a. 상기 세목에서 아래 유형은 지연 납부에 대한 이자 형태의 과태료 삭제 :

- 호텔세, 레스토랑세, 유흥세, 주차세, 자동차연료세(PBBKB), 자동차 양도세(BBNKB), 토지 및 건물 취득세(BPHTB), 자동차세(PKB), 광고세, 지하수세(PAT)

b. 아래 유형은 고지서(STPD)에 부과된 이자형태의 과태료 삭제 :

- 호텔세, 레스토랑세, 유흥세, 주차세, PBBKB, BPHTB, 광고세, 재산세, 지하수세

c. 다음 유형에 대한 등록 지연으로 인한 벌금형태의 과태료 삭제 :

- 호텔세, 레스토랑세, 유흥세, 주차세, PBBKB, BBNKB, PKB, 광고세, PAT

Pajak Restoran는 레스토랑을 이용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율은 10%이다. 지난 4월 1일 부가세율이 10%에서 11%로 인상되었지만 Pajak Restoran 은 지방세로 여전히 10% 세율이 부과되고 있다.

Pajak Hiburan 은 유흥세로서 극장, 공연, 전시회, 디스코텍, 노래방, 나이트클럽, 펌, 바, 서커스 공연, 당구, 볼링, 경마, 자동차 경주, 마사지, 스파, 피트니스, 스포츠 경기 등 다양하며, 세율도 각각 차이가 있다. 극장의 경우 10%, 디스코텍, 노래방, 나이트클럽, 바 등의 경우 25%, 당구, 볼링 10%, 마사지, 한증탕 및 스파의 경우 35%, 피트니스 센터 10% 등 세율이 부과된다.

호텔세, 레스토랑세, 유흥세 등은 업주가 소비자(이용자)에게 상기 세율을 받아서 납부하는 형태로서 납세의무는 업주에 부과된다.

이와 별개로 자동차세, 취득세, 재산세 등은 당사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토지 및 건물 취득했을 때 NJOPTKP (Nilai Jual Objek Pajak Tidak Kena Pajak)의 5%를 납부하여야 한다.

토지 및 건물을 매각했을 경우에는 PPh4(2)의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소득세법 개정전에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일하게 5% 였지만 소득세는 2.5% 로 개정되었으나 지방세인 BPHTBH는 여전히 5%에 해당되고 있다.

이러한 지방세를 기한내 납부하지 않았거나 벌과금 고지서를 받았다면 상기 기한내에 납부할 경우 벌과금은 삭제될 수 있다. 물론 상기 규정은 DKI 자카르타에만 해당되는 규정이다. <끝>



장성들의 시신을 폐우물에 유기하는 장면

### 지난호에 이어

그는 며칠 전부터 공산주의자들의 이상행동발생에 대한 경고를 접하고 있었지만 정작 쿠데타가 벌어지던 10월 1일 새벽 그의 자택을 지키는 경비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빠르만 소장 부부는 그날 새벽 4시 10분경에 집주변의 소란스러운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었다. 빠르만이 무슨 일인가 알아보려 나갔을 때 24명의 짜끄라비라와 부대원들이 응접실로 돌입해 중대한 사태가 벌어졌으니 대통령을 만나러 가자며 그를 강권했다. 그가 정복을 갖추는 동안 병사들은 응접실에서 기다리지 않고 안방까지 들어와 그를 감시했으므로 의아하게 여긴 그의 아내가 병사들에게 명령서를 보여달라 하자 한 병사가 명령서를 가져왔다며 자기 주머니를 툭툭 두드려 보였을 뿐 끝내 명령서를 꺼내 보

이지는 않았다.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빠르만은 그의 상관인 야니에게 이날 새벽 벌어진 일을 보고하라고 아내에게 당부했으나 반란군이 전화선을 끊어놓은 상태였다. 그렇게 끌려간 빠르만 소장 역시 루방부야에서 죽음을 맞았고 그의 시신도 폐우물에 유기되었다.

M.T. 하리요노 소장은 국민치안대(TKR)에서 소령계급을 달고 군생활을 시작해 독립전쟁 당시 여러 보직을 거쳤고 헤이그 원탁회의에도 인도네시아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던 인물이었다. 그의 자택에도 10월 1일 새벽 어김없이 짜끄라비라와 부대원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문앞에 나온 부인에게 대통령이 남편을 찾는다는 전언을 넣었다. 그러나 이를 들은 하리요노 소장은 아침 8시에 다시

찾아오라는 말을 전달한다. 일개 장군이 대통령 지시를 그렇게 임의로 연기시킬 리 없는 일이었으니 하리요노는 이때 이미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것 같다. 하리요노가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자 반란군들은 동요하더니 급기야 목청을 돋우며 화를 내기 시작했다. 하리요노는 그런 상황을 예상한 듯 아내와 아이들을 다른 방으로 피신시킨 후 방의 불을 끄고 문밖의 반란군들과 대치했다. 하지만 권총 한 자루 없이 소총으로 무장한 20여 명의 병사들을 상대하는 것은 절망적인 일이었다.

초조함을 참지 못한 반란군이 급기야 방문 자물쇠를 쏘 문을 부수고 들어오자 하리요노는 어둠 속에서 신문지에 불을 붙이려던 한 병사에게 달려들어 소총을 뺏으려 시도하다가 오히려 어깨를 대검에 찔리는 부상을 입었다. 그 시점에서 저항을 중지했다면 그는 잠시 목숨을 연명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급히 몸을 피해 정원 쪽으로 달려나갔고 반란군들은 그를 가만 두지 않았다. 반란군의 일제사격을 받은 하리요노는 현장에서 즉사하고 말았다. 체포과정에서 살해된 야니 중장이나 빨자이판 소장의 경우와 같이 반란군들은 하리요노 소장의 시체를 트럭에 싣고 루방부아야의 반란군본부로 달려갔다.



반란군의 공격을 받은 M.T. 하리요노 소장  
(루방부아야 전시관 디오라마)

짜끄라비라와 부대원들의 공격을 받고도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모면한 사람은 나수티온 장군뿐이었다. 아립 중위의 지휘 아래 반란군의 나수티온 체포조가 트럭 네 대와 짝 두 대에 나누어 타고 뜨꾸 우마르 거리의 나수티온 장군 자택에 도착한 것은 10월 1일 새벽 4시경이었다. 나수티온은 평범한 단층주택에 살고 있었는데 20명 가까이 되는 경비병들은 군용트럭의 접근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고 부관 빼에르 펜데안 중위와 함단 만슈르 경위는 마침 모두 잠들어 있던 시각이었다. 그 군용트럭이 호의적인 병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아립 중위의 부대는 이미 담장을 넘어 안에 있던 경비병들을 제압했고 반란군 15명 정도가 집안으로 쳐들어갔다.

그 시각 나수티온 부부는 모기에 시달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에 부인이 문밖을 내다 보았을 때 이미 짜끄라비라와 부대 병사들이 당장이라도 발포할 기세로 총을 겨누고 있었다. 그녀는 급히 문을 닫으며 남편에게 급박한 위험이 닥쳤음을 알렸고 나수티온이 직접 상황을 확인하려 문을 열자 반란군은 총격을 시작했다. 그가 급히 문을 닫자 부인이 자물쇠를 잠갔지만 반대쪽에서 들어온 병사들이 침실을 향해 총격을 가해왔다. 쿠데타가 발생했음을 직감한 나수티온은 뒤쪽 정원으로 나가 이라크 대사관저와 접한 담을 향해 달렸다. 그가 가족들을 반란군의 손아귀에 남겨둔 채 혼자 몸을 피한 것에 대해 일각에선 비난이 일기도 하지만 그때 그가 용맹스럽게 반란군과 맞선다 해도 이미 경비병들과 부관들이 제압된 상황에서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 더욱이 전군사령관인 그가 사살되거나 생포된다면 인도네시아는 반란군의 손에 고스란히 넘어갈 확률이 훨씬 높아질 터였다.

그를 발견한 반란군들이 퍼부은 총알세례를 피해 그가 간신히 담을 넘은 것은 그야말로 천우신조였다.



**비에르 펜데안 중위. 그는 흰칠한 미남이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발목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으나 반란군은 이라크 대사관저까지 추격해 오진 않았다. 근본적으로 반란군들은 도주하는 자가 있어 총을 쏜 것이지 그가 나수티온인지는 몰랐던 것이다.

이라크대사관 담을 넘어 피신한 나수티온 장군과 한 집에 살던 나수티온의 가족들은 총소리에 놀라 모두 일어났는데 나수티온의 어머니와 여동생 마르디아는 나수티온의 침실로 달려가 다섯살 난 나수티온의 막내딸 이르마를 안고 피신하려 했다. 그 순간 반란군의 총격이 문을 뚫고 날아와 마르디아의 손을 관통했고 어린 이르마의 척추도 세 발의 총탄으로 완전히 부수어져 버리고 말았다. 피투성이가 된 이르마는 나중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닷새 후 숨지고 말았다.

나수티온의 큰 딸 안띠와 유모 알피아는 부관들이 쓰는 별채의 침대 밑에 숨어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펜데안 중위는 총에 장전을 하고 별채에서 뛰어나왔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해 반란군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어둠 속에서 반란군은 그를 나수티온 장군이라 착각했다. 그것이 나수티온에겐 행운이었고 젊은 펜데안에겐 가혹한 사형선고가 되었다. 그들이 펜데안을 나수티온으로 착각하지 않았다면 필사적인 수색 끝에 이라크 대사관저까지 쳐들

어가 나수티온을 찾아내고야 말았을 것이다. 남편을 피신시킨 부인은 뒤뜰에서 돌아와 피투성이가 된 막내딸을 안아두고 전화로 앰블런스를 부르려 했지만 아립 중위가 그녀를 저지하며 나수티온의 행방을 집요하게 물었으므로 그녀는 걱정적인 언쟁을 벌여야 했다. 그러다가 호루라기 신호가 울리자 그들은 체포한 펜데안 중위만을 트럭에 태우고 신속히 철수했다. 펜데안 중위는 루방부아야에서 다른 장성들과 함께 죽음을 맞았다.

나수티온의 이웃이었던 요하네스 레이메나(당시 세 명의 부총리 중 한 명)의 집을 지키던 경비단장 까펠 샷쭈잇 뚜분이 나수티온의 집에서 벌어지던 소동을 목격하고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 다가오다가 사살되었는데 이 일로 레이메나 역시 숙청 대상에 올라 있었다는 얘기가 나돌았으나 이는 혼란 속에서 일어난 의도치 않은 사고였다.

이 모든 것들은 9분 동안 벌어진 일이었는데 나수티온 부인이 이르마를 군병원으로 데려간 후에야 경비병들은 알람을 울렸고 뒤늦게 허겁지겁 나수티온의 집으로 달려와 상황을 파악한 자카르타 수비대장 우마르 워라하디꾸수마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이미 아무 것도 없었다.

G30S사태라고 일컬어지는 9월 30일 쿠데타는 대통령 경호단장 운똥 빈 삼수리 중령을 위시한 반란군 수뇌부가 브라위자야 사단, 디포네고로 사단의 지원을 받아 대통령 경호부대 짜끄라비라와 부대를 움직여 일으킨 사건이었다. 운똥 중령은 잘 알려진 공산주의 옹호자였고 1948년 마디운 반란에도 가담했던 인물이었다. 반란군이 루방부아야의 본부로 생포해 간 수쁘랍또 소장, 빠르만 소장, 수도요 준장과 펜데안 중위는 모진 고문과 조롱을 받은 후 차례차례 처형되었고 체포과정에서 사망한 야니 장군 등 다른 장성들과 함께 폐우물에 버려졌다. 당시의 처참함을 고스란히 담은 그들의 시신이 수습된 것은 사흘이 지난 후였다.

이들은 라디오 방송국과 통일광장을 점령한 후



왼쪽부터 RE 마르타디나타 해군사령관, 하르또노 해병대 사령관, 수찐또 유도디하르요 경찰총장

CIA와 공모하여 국가전복을 시도한 장성들을 체포, 제거하고 수까르노 대통령과 국가를 보호했다는 성명을 라디오를 통해 발표했고 뒤이어 내각을 해산하고 ‘혁명위원회’가 그 자리를 대신함을 공표했다. 중부자바에서도 족자와 솔로에서 10월 1일과 2일 사이 이 사태에 가담한 군인들이 통제권을 장악했고 그 과정에서 두 명의 고위장교들이 살해되었다.

한편 나수티온은 이라크 대사관저 화단에 숨어있다가 10월 1일 아침 6시에야 부러진 발목을 한 채 집에 돌아왔다. 그는 보다 안전한 국방부로 자리를 옮겼는데 부관이 차를 운전하는 동안 차 바닥에 바짝 엎드려 혹시나 있을지 모를 반란군의 시선을 피하려 했다. 그는 전략예비사령부의 수하르토 장군에게 전문을 보내 자신이 살아있음을 알리는 것도 잊지 않았다. 정말 우연하게도 이 쿠데타로 만약 나수티온마저 납치 살해되었다면 자신보다 더 높은 계급의 상급자가 한 명도 군에 남아 있지 않았을뿐 한 수하르토 장군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신속하게 군 통제권을 손에 넣었다. 이를 확인한 나수티온은 수하르토에게 대통령의 행방을 찾아 내도록 명령했고 해군사령관 RE 마르타디나타와 해병대 사령관 하르또노, 경찰총장 수찐또 유도디하르요에게 연락을 취해 자카르타로 들어오는 모든 육로와 해로를 봉쇄하도록 지시했다.

공군에게 아무런 명령도 내리지 않은 이유는 공군사령관 오마르 다니 장군이 9월 30일 쿠데타의 동조자라는 정황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수하르토는 이 명령을 즉시 수행했다.

수하르토는 이 쿠데타를 가장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병력과 지위를 가진 핵심 군수뇌부 중 한 사람이었는데 짜끄라비라와 부대의 납치장성명단에 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은 실로 불가사의한 일이었다.

10월 1일 오후 2시경 반란군 측이 혁명위원회의 발족을 공표했을 때 나수티온은 수까르노가 반란군에게 납치되어 할림 공군기지의 반란군 본부에 잡혀 있다고 간주했으므로 수하르토, 마르타디나타, 유도디하르요에게 대통령 구출과 자카르타 치안회복에 주력할 것과 이를 위해 수하르토를 이 작전의 총사령관으로 삼는다는 내용의 명령을 하달했다. 본의 아니게, 그렇지 않아도 모든 매직카드들을 쥐게 된 수하르토에게 여기서 나수티온은 그 힘을 맘껏 휘두를 명분까지 부여하면서 대권을 향해 가는 문을 활짝 열어준 셈이다.

그런데 수하르토가 작전에 착수하던 순간 할림에서 수까르노의 전문이 날아들어왔다. 그것은 그날 새벽 사망한 아흐맛 야니의 후임으로 자신의 총성파로 알려진 뿌라노토 렉소사무드라 소장을 육군사령관에 임명하기로 결정했으니 당장 할림공군기지로 출두시키라는 내용이었다. 수하르토는 결코 뿌라노토의 할림행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수까르노가 그 결정을 절대 철회하지 않으리란 것 역시 잘 알고 있었다. 수하르토는 자기 말에 힘을 얻기 위해 나수티온 장군에게 전략예비사령부에 와 줄 것을 요청했다.



이제는 박물관이 된 나수티온의 자택

다음호에 계속

## <경제 비즈니스>

### 쇼피 인도네시아, 정리해고 발표... 스타트업 감원 추세 이어져

지난 수개월 간 인도네시아 IT부문에서 직원을 줄이는 움직임이 거센 가운데, 온라인 쇼핑몰 쇼피 인도네시아(Shopee Indonesia, 이하 쇼피)가 인도네시아에서 정리해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난 9월 19일 발표했다.

싱가포르 IT 대기업 씨(Sea Ltd.)의 자회사인 쇼피는 인도네시아에서 “많은” 직원을 해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블룸버그는 쇼피가 큰 손실을 막고 투자를 회복하기 위해 광범위한 지역에서 인원을 줄이고 있다며, 인도네시아에서 직원의 3%를 해고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쇼피는 동남아시아 구조조정에 앞서 과감하게 시장 철수도 단행했다.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 주요 시장에서 철수했고, 지난 3월에는 인도 사업을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쇼피의 인도 시장 철수에 대해서는 인도 정부의 중국 관련 기업 규제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쇼피는 이번 감원이 인도네시아 판매자, 구매자 및 파트너에 관한 서비스와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쇼피 인도네시아 홍보 책임자 라드날 나파쁘라리야는 정부 규정에 따라 해고절차를 진행한라며, 해당 직원은 법규정에 따라 급여 1개월치가 추가로 지급되는 퇴직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내외 언론은 동남아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쇼피가 인력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쇼피가 추가적인 투자보다는 적자를 줄여 이익을 발생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쇼피는 싱가포르의 SEA가 운영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와 태국, 필리핀, 베트남, 대만 등 아시아 7개국에서 서비스를 운영 중인 동남아 최대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다. 지역별 사용자 특성에 최적화된 모바일 기반 서비스가 특징이다. 지난해 기준 누적 앱 다운로드 수만 2억 건을 넘어섰다.

쇼피에 앞서 링크아자, 고젝, 그랩, 제니우스 에듀케이션 등 인도네시아 스타트업들이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지난 10여 년 간 꾸준하게 성장세를 누려왔던 스타트업 업계에 감원의 칼바람이 불고 있는 이유는 신규 투자가 눈에 띄게 줄기 때문이다. 미국 등 주요 국가의 중앙은행이 잇달아 금리를 인상하자 시중에 풀렸던 돈이 빠르게 말라붙었고, 결국 스타트업과 같은 위험 부문에 들어오려는 투자가 차츰 실종됐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주요국 증시에서의 기술주 약세 현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악재도 투자 감소의 원인이다.

시장조사업체 CB 인사이츠에 따르면, 1분기 전 세계 벤처 투자 규모는 약 1,439억 달러(188조 원)로 직전 분기보다 19% 감소했다. 2020년 2분기(585억 달러) 이후 계속 성장해 온 투자액이 7분기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빅테크마저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재 성과보다는 가능성을 보고 투자해야 하는 스타트업에 돈이 모이기 어렵다. 결국 스타트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 감축이란 고육책을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제주항공, 한국-인니 마나도 등 여러 지역 하늘길 연다”

제주항공이 한국과 북부술라웨시 주도 마나도(Manado) 등 인도네시아 여러 지역에 취항하는 신규 직항 노선을 계획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경제 일간지 비즈니스인도네시아 보도에 따르면 제주항공과 북부술라웨시 주정부는 지난 9월 16일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에서 한국과 마나도 직항 노선 운항 등을 골자로 하는 ‘관광 및 경제의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제주항공 김이배 대표이사, 올리 돈도감베이 북부술라웨시 주지사,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전 인도네시아대통령, 간디 술리 스티안또 주한인도네시아대사가 참석했다.

업무협약에 따르면 제주항공이 인천, 부산 및 제주 등 한국에서 마나도를 연결하는 신규 노선을 연내에 개설하고, 한국-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이 되는 2023년에 한국에서 발리, 롬복, 자카르타, 족자

카르타를 연결하는 직항로 개설을 추진한다.

또 제주항공의 새로운 노선 개설과 인도네시아 정부의 ‘10개의 새로운 발리(10 New Bali’s)’ 정책 실현을 위해 그리고 양국간 경제·문화·관광 교류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올리 주지사는 마나도는 한국에서 여객기로 5시간 정도 걸리는 전략적인 위치에 있다면서, 신규항로가 북부술라웨시는 물론 한국 관광을 증진시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올리 주지사는 이어 마나도 사람들이 여행을 좋아하는 만큼 직항노선이 개설되면 한국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나도 주변에는 맑고 아름다운 바다가 펼쳐져 있어 스노클링과 다이빙 포인트가 곳곳에 있다. 마나도 앞바다의 부나켄 국립공원에는 세계적인 다이빙 포인트가 있으며, 주변에도 관광명소가 많다.

## [기업소개] 아스트라 인터내셔널(Astra International)

1957년 윌리엄 수르야자야 등 공동창업자에 의해 설립된 아스트라 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복합기업이다.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IDX, ASII)에서 시가총액 기업순위가 5위(197억4천만 달러로 2022년 4월 9일 기준)를 기록하고 있다.

영국계 지주회사 자딘 매시선(Jardine Matheson)이 대주주이며, 주요 사업은 그룹의 효자사업 부문인 자동차 제조·판매업을 필두로 금융업, 플랜테이션, 광산업, 빅테크 등이다.

아스트라 인터내셔널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자동차 제조와 판매를 하는 대기업이다. 도요타, 다이하츠, 혼다 등 일본계 자동차와 BMW 등 독일계 자동차 등과 제휴를 맺어 인도네시아 자동차시장의 약 50%를 점유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입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

한다. 아스트라 인터내셔널은 이런 관세장벽을 이용해 일본차 브랜드를 조립·생산하면서 급성장했다. 1980년대부터 현지 생산을 꾸준히 이어온 덕분에 관세의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만큼 가격경쟁력 있는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었다.

아스트라 인터내셔널의 주요 사업별 매출 비중은 자동차 부문 약 52%, 중장비 약 25%, 금융 10%, 플랜테이션 8%를 차지하고 있다.

2018년 2월 인도네시아 데카론 기업인 고젝(Go-jek)의 지분을 약 2조 루피아 어치 인수하면서 빅테크 사업 부문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이어 2020년 5월 전통적인 금융 부문 자회사인 뽀르마따은행(Bank Permata)의 지분 44.56%(약 33조3천억 루피아)를 태국의 방콕은행에 매각했다.

## “블랙핑크 의상 제작한 인도네시아 디자이너 화제”

K팝 대표 걸그룹 블랙핑크의 멤버들이 새 앨범 홍보를 위해 인도네시아 디자이너 디아나 뿌뜨리(Diana M Putri)의 옷을 입어 화제가 됐다.

자카르타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블랙핑크는 2년 만에 두 번째 앨범 ‘Born Pink’와 첫 번째 싱글 ‘Shut Down’의 뮤직 비디오를 지난 9월 16일 발표했다.

영상 속 블랙핑크 두 멤버가 디아나가 디자인한 의상을 입고 있고 등장하자, 디아나는 물론 인도네시아 팬들이 환호했다.

디아나의 옷은 새 앨범과 관련된 다른 홍보 자료에서도 입을 예정이다.

디아나는 “현재 K팝의 중심에 서 있는 멤버들에게 옷을 입힌 것은 정말 꿈 같은 일”이라고 개인 인스타그램에 썼다.

디아나는 블랙핑크 소속사인 YG 엔터테인먼트에서 갑자기 요청했고, 인도네시아와 로스엔젤레스 양쪽에 있는 디아나 꾸뛰르 아카이브에서 최종적으로 골랐다”고 말했다.

블랙핑크의 제니는 진주를 엮어서 샹들리에처럼 늘어뜨려 만든 코르셋을, 로제는 스와로브스키 보석이 박힌 쇼츠를 착용해 앨범을 홍보했다. 리사는 눈물방울 보석으로 장식된 트위드 페플럼 스커트를 입었고, 지수는 다양한 색의 프린지로 장식한 반바지를 입었다.

## 한국춤과 인도네시아춤이 만났을 때: 안은미 신작 ‘디어 누산타라: 잘란잘란’

인도네시아 국기의 색인 빨간색과 흰색을 활용한 의상, 인도네시아 전통 가면 토뽕(topeng), 인도네시아 전통가요 크론쥙(keroncong), 바타비아(옛 자카르타) 민속 공연단의 춤동작과 복장, 인도네시아 전통무술 실랏(silat)의 동작들, 발리춤의 동작들을 한국춤과 현대무용에 익숙한 듯 낯설게 녹여넣은 공연은 흥겨웠다.

“이 작품은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미래를 미리 서울에서 축하하고 응원하는 춤이면서 또한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될 한국의 문화 다양성을 기대하고 불러오는 춤이기도 하다. 우리의 춤으로 섬과 섬을 잇는다. 몸의 언어로 나라와 나라를 잇는다.”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현대무용가 안은미는 신작 ‘디어 누산타라: 잘란잘란’(이하 잘란잘란)에 대해 이렇게 소개했다. 세종문화회관의 컨템포러리 시즌 ‘싱크 넥스트 22’의 폐막작으로 ‘잘란잘란’이 지난 9월 1일부터 4일까지 서울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 무대에 올랐다.

관습의 틀을 깨는 도발적이고 과격적인 춤으로 한국 현대무용계에 각인된 안은미는 춤과 음악만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어와 한국어까지도 춤에 포함시켰다. 인도네시아 무용수가 말하는 ‘한국어’의 숙련도가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알고 인도네시아가 우리를 아는 수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했다. 인도네시아어로 잘란은 걷다, 잘란잘란은 산책한다는 뜻이다. 누산타라는 인도네시아 군도를 의미하는 단어이면서 칼리만탄 섬에 개발되는 인도네시아 신수도의 이름이기도 하다.

안은미는 춤의 기본이 걷는 발과 걸음의 위치와 속도에서 시작되듯이 두 나라 간의 가장 기본적인 움직임인 걸음에서 시작해서 끝없는 여정을 혼자 아닌 함께 산책하는 과정으로 담아낸 작품이 ‘잘란잘란’이라고 설명한다.

‘잘란잘란’ 공연에는 약 1년간의 오디션을 거쳐 선발한 인도네시아 무용수 5명이 무대에 올라, 인도네시아 각 지역의 색을 담은 춤을 선보이며 문화의 다양성과 공존의 메시지를 표현했다.

## “조코위, 유가 인상 반발 잘 극복할 듯” 정치전문가

인도네시아에서 연료비 인상을 반대하는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으나, 정치전문가들은 조코 위도도(조코위) 정부가 이번 난국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9월 3일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는 휘발유(제품명: Peralite)와 경유(제품명: Solar) 가격을 각각 30% 넘게 인상했다. 고유가에도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며 보조금 석유제품 가격을 통제했지만, 재정 부담이 커지자 결국 가격을 올린 것이다.

기름값 인상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초긴장 상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기름값 인상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가 연료 가격을 70% 올리자 전국적인 대규모 폭력시위가 일어났고 32년 철권통치를 이어오던 수하르토 대통령이 실각하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조코위 대통령은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견고한 연합정부의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큰 탈 없이 처리할 것이라는 게 정치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여론조사기관 사이폴 무자딘연구소(SMRC) 시로주딘 압바스 대표는 “조코위의 정치적 자산이 단기간 쇼크를 흡수할 수 있을 만큼 견고하다”며 “조코위 정부가 이 상황을 잘 처리해 유가 인상에 따른 반발이 잦아들 것”이라고 논평했다. 또다른 여론조사기관 인디카포르 뿔리떡(Indikator Politik)의 케네디 무슬림 연구원은 “2기 조코위 정부의 지지도가 70%를 상회하고 있으며,

국회(DPR) 의석수의 82%를 차지하고 있는 연립 정부도 견실하다”며 “레임덕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고 내다봤다.

케네디는 이어 조코위가 자신의 정적이었던 프라보워 수비안토 그린드라당 총재를 2기 내각에 국방장관으로 끌어들이므로써 야당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영리한 정치를 하고 있고, 거국내각을 구성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와 최근 인플레이션 압박을 잘 극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코위 대통령은 유가 인상과 관련한 TV 연설에서, 국민들에게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호소하면서, “정부 연료보조금으로 값싼 자동차 기름을 공급하는 것은 중산층과 상류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서민층을 위한 현금보조금 등 사회적 지원을 늘렸다”고 말했다.

이번 유가 인상으로 조코위 정부는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처할 뿐만 아니라 신수도를 포함한 주요 국가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데일리  
인도네시아



민선희

『유창한 회화를 위한 열공 인도네시아어 문법』 저자

이번 10월호에서는 같은 어근을 갖고 있지만 접미사 {-i}와 {-kan} 때문에 의미가 서로 다른 단어 묶음을 공부해 보기로 했어요. 단순히 외우면 되는 단어들이지만, 당연히 문장으로 이해하는 게 선행되어야겠죠? 처음 보면 복잡해 보이고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익숙해질수록 쉬워집니다. 자꾸 자꾸 읽고 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단어를 가지고 구글에 검색해서 나오는 문장을 사용했어요. 일부 문장은 KBBI사전에서 따왔어요. 여러분도 구글에서 검색해서 문장을 찾아, 노트에 받아 적어 보세요!

▷ **menaiki** Bupati Bengkayang **menaiki Bukit Sepadang Hill** sebagai bentuk dukungan wisata. (서부 칼리만탄) 봉카양 군수는 관광 부흥의 일환으로 Sepadang Hill 언덕을 올랐다.

★menaiki bukit = naik ke bukit

menaikkan Pemerintah **menaikkan harga BBM**.  
정부는 유류비를 인상했다.

Jika BBM **tidak dinaikkan**, negara akan kesulitan membayar utang.  
유류비를 인상하지 않으면, 국가는 부채지불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 **mendatangi** Anies **mendatangi** perempatan tersebut untuk melihat dan mengkaji penyebab kemacetan parah.  
아니스 그 사거리에 가 심각한 교통체증을 확인하고 원인을 파악하고자 했다.

★mendatangi = datang ke

Warung daging anjing di Kota Solo itu masih cukup ramai **didatangi** pembeli.  
솔로에 있는 그 개고기 식당은 요즘도 찾는 이가 꽤 많다.

mendatangkan Konser BTS di Kota Busan itu akan mendatangkan 100.000 penonton.  
★mendatangkan 기본 뜻 : 무언가를 오게 하다(부르다 초청하다)

부산에서 열리는 그 BTS콘서트는 관객 10만명을 불러모을 것이다(직역: 10만명을 오게 한다) → 10만명 규모로 진행할 것이다.10만명 규모로 추진 될 것이다. 다양한 한국어 표현으로 번역 가능.

Curah hujan besar ini diperkirakan akan **mendatangkan** banjir.  
이번 폭우로 홍수가 예상된다.

Borneo FC akan **mendatangkan** Alex Fernandes sebagai asisten pelatih. 보르네오FC는 Alex를 코치로 등용할 것이다.

▷ menduduki

① 차지하다

Blackpink **menduduki** puncak chart Billboard Top Album Sales minggu ini.

블랙핑크가 이번 주 빌보드 앨범판매 순위 차트 정상을 차지했다.

②점령하다

Dampak dari Kebijakan Jepang Selama **Menduduki** Indonesia  
일본의 인도네시아점령기 시절 정책적 영향

wilayah Ukraina yang **diduduki** Rusia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

mendudukkan **mendudukkan anak di** atas toilet 변기위에 아이를 앉히다  
말그대로 어디에 물리적으로 누군가를 ‘앉히다’ ; (상징적으로) ‘자리에 앉히다’

Pilkada\* Jakarta 2017 yang **mendudukkan** Anies **di kursi** Gubernur merupakan Pilkada paling brutal.

아니스를 주지사 자리에 앉혔던(즉, 아니스가 주지사로 선출되었던) 2017년 자카르타 지역단체장 선거는 가장 잔인한 선거였다.

\*Pilkada =Pemilihan Kepala Daerah

▷ memasuki

Presiden **memasuki** pasar dan berkeliling untuk menyerahkan bantuan. 대통령은 시장에 들어가 돌아다니면서 지원품(지원금)을 나눠주었다. (대통령은 지원품을 나눠 주기 위해 시장에 들어가 돌아다녔다)

memasukkan Dua rapat paripurna sebelumnya belum juga **memasukkan** agenda pengesahan RUU tersebut.

이 전에 두 차례 열린 본회의에도 그 법안 통과 관련 아젠다는 들어가 있지 않았다.

Kiai tersebut menegaskan kepada orang tua bahwa tidak perlu takut **memasukkan** anak ke pondok pesantren. 그 키아이(종교지도자)는 이슬람기숙학교에 아이를 입학시키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학부모들에게 강조했다.

- ▷ **menuruni** Kecelakaan itu terjadi setelah truk itu **menuruni** Flyover.  
그 트럭이 고가도로에서 내려오고 나서, 사고가 발생했다.  
★**menuruni =turun dari**, menuruni gunung = turun dari gunung 산에서 내려오다
- menurunkan Sarapan sering dilupakan padahal sangat berguna untuk **menurunkan** berat badan. 아침식사가 체중감량에 매우 도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침 식사를 자주 거른다.  
★mengurangi berat badan (x)
- ▷ **menerangi** menerangi = memberi terang, menyinari (hingga menjadi terang)  
어디가 밝아지게 빛을 주다  
Kehadiran listrik di 97 desa tersebut bakal **menerangi** 19.650 keluarga. 97개 마을에 전기가 들어와, 19,650개 가구에 빛이 들게 될 것이다.  
  
비유) memberi terang 빛을 주다 (pada hati, pikiran dsb.)  
Semoga Tuhan **menerangi hatiku** dan menunjukkan jalan yang benar. 신이 제 마음을 밝혀 주시옵고 옳은 길을 제시해 주시길. (참고로 저는 종교가 없어요~~~~예문은 예문일 뿐)
- menerangkan 설명하다 : Pihak polisi **menerangkan**, kejadian tersebut diketahui saat penjaga sekolah datang dan mengecek ruangan kelas. 경찰측은 / 설명했다 / 그 일은 / 학교 경비원이 와서 / 교실을 확인해 /알려지게 되었다고 /  
  
★keterangan 설명 surat keterangan 진술서 surat keterangan dokter 의사소견서 keterangan pers 기자회견
- ▷ **meyakini** ★meyakini = yakin benar (akan) ~에 대해 정말 확신하다  
Dubes Norwegia **meyakini**, banyak pemimpin Indonesia dan dunia akan lahir dari DIY.  
노르웨이 대사는 인도네시아 지도자와 세계 지도자가 족자카르타주에서 많이 배출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 meyakinkan Rupanya bukan perjalanan yang singkat untuk mereka berdua **meyakinkan orang tua** agar bisa ke jenjang pernikahan.

결혼 단계로 갈 수 있도록 부모님을 확신시키는 일이 그 두사람에게는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짧은 여정이 아니다, 긴 여정이었던듯 하다)

▷ **menyadari**

**Menyadari** bahaya depresi itu penting.

우울증의 위험성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

**Harus disadari bahwa** tidak semua wilayah di Kaltim sudah menyerap teknologi dan informasi dengan baik.

동부칼리만탄의 모든 지역 주민들이 기술과 정보를 잘 이해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인식해야(인지해야) 한다.

menyadarkan

Masa pandemi **menyadarkan kita** (akan) pentingnya digitalisasi ekonomi, khususnya bagi pelaku UMKM.

팬데믹 기간은 우리를 깨닫게 했다 / 경제 디지털화의 중요성을 / 특히 중소기업에게 /

팬데믹을 통해 우리는 경제 디지털화의 중요성, 특히 중소기업에게 (경제 디지털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 **mengajari**

닌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영어를 가르치신다. (같은 뜻이지만 다른 구조로 사용하니, 잘 구분해 보세요!)

Ibu Ninda **mengajari kami** bahasa Inggris.

mengajarkan

Ibu Ninda **mengajarkan bahasa Inggris** kepada kami.

★diajari 앞과, diajarkan 앞에 어떤 단어가 오는지 잘 보세요!

-Para siswa diajari untuk membuat berbagai alat musik.

학생들은 여러 가지 악기를 만드는 방법을 배웠다.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음)

-Etika **yang perlu diajarkan** kepada anak ketika batuk atau bersin : sebisa mungkin tutup hidup dan mulut menggunakan tisu, kemudian buang ke tempat sampah.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기침하거나 재채기 할 때예의(에티켓) : 가능한 코와 입을 휴지로 가리고, (쓰고 난 휴지는) 쓰레기통에 버린다.

아직도 공부할 게 더 남아있어요. 11월호에 이어서 {me-i}, {me-kan} 차이에 대해 공부해 봅시다!



## Taste Paradise (Thamrin)



글: 주윤지(한국콘텐츠진흥원 인도네시아비즈니스센터)

여러분~안녕하세요☺️ 사랑살랑 한국의 가을 바람이 문득 그리워지는 10월입니다. 어느덧 올 한해도 2달 남짓 남았네요. 이번 호에서 소개해드릴 식당은 딤섬 맛집 중식당 <Taste Paradise>입니다. 플라자 인도네시아 몰 안에 위치한 이 식당은 최근에 레노베이션을 마치고 재오픈한 상황입니다. 레노베이션 전에도 주말엔 예약없이 식사하기 힘든 인기식당이었는데요. 역시나 레노베이션 이후에도 많은 손님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듯 합니다. 이 식당 메뉴도 무척이나 다양한데요. 이 중에서 몇 가지 추천메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Steamed Rice Roll with Fresh Prawn Filling(58,000루피아++)입니다. 보통 현지에서 ‘청판(Chang Fen)’ 이라 불리는 딤섬인데요. 청판은 중국 광둥, 홍콩 지방의 음식으로, 달구어진 팬에 기름을 살짝 두르고 쌀가루를 물에 풀어 얇게 펼치고 반투명하게 익으면 취향대로 소를 넣어 말아서 썰내는 딤섬입니다. 예전에는 한국의 중식당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는데 요새는 한국에서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이 음식은 다양한 딤섬요리 중 피가 가장 부드러워 입에서 살살 녹는 편이죠. 자카르타 내 타 중식당에서도 청판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 식당만큼 내용물인 새우살이 크고 오동통통한 곳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피는 부드러운데 내용물은 뽀드득 뽀드득 씹는 맛이 일품이에요.

그 다음 딤섬으로는 Steamed Prawn Dumpling with Abalone(88,000루피아++)입니다. 이 딤섬요리는 이 식당의 시그니처 메뉴인데요. 다른 딤섬들보다는 가격이 다소 있지만 후회하지 않을만한 퀄리티예요. 기대했던 것보다 전복의 크기가 그리 작지 않고 쫄깃쫄깃합니다. 토핑 전복 뿐만 아니라 딤섬 안에 새우살도 푸짐합니다. 한번 드셔보시길 바라요. 조금이나마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될 거예요^^



마지막 딤섬 추천메뉴인 Pork Dumpling in Hot Chilli Vinaigrette (42,000루피아++)입니다. 예상치 못한 딤섬의 맛을 느끼고 싶을 때, 꼭 한번 주문해보세요. 핫칠리가 아닌 마라맛의 딤섬입니다. 기본적으로 맵습니다. 매운음식을 좋아하시는 분은 함께 나오는 칠리소스에 흠뻑 찍어드셔 보세요~ 정말 맵습니다. 하지만 또 생각나는 그런 맛이에요!

이제는 딤섬요리와 함께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야채볶음 요리인 Taste Paradise Stir-Fried Assorted Vegetable (168,000루피아++)입니다. 야채요리치고는 가격이 다소 있지만, 음식이 서빙되고 첫 젓가락질을 하시게 되면 수궁이 가실 거예요. 그냥 야채요리가 아닌 오징어가 숨겨져 있는 오징어숙주야채볶음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오징어의 비린내가 전혀 안나며 “이게 오징어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부드럽습니다. 자칫 느끼할 수 있는 딤섬요리 가운데 느끼함을 잡아주는 요리이지요. 야채가 매우 신선하여 식감이 정말 아삭아삭합니다. 강추입니다!

모든 요리의 꽃은 고기이지요? 마지막은 BBQ Combination (328,000루피아++)입니다. 딤섬 요리도 맛있지만 돼지고기 및 오리고기 요리인 이 메뉴 정말 맛있습니다. 중국식 통삼겹구이인 크리스피 포크벨리(Crispy Pork Belly), 북경식 오리구이인 로스트덕(Roast Duck), 중국식 돼지바비큐인 차슈(Char Siu)로 구성된 메뉴입니다. 크리스피 포크벨리는 겉은 매우 바삭하지만 속은 부드럽고, 차슈는 적당한 달달함과 고기가 정말 부드러워요. 로스트덕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두 가지 맛의 고기가 매우 맛있다면 살짝 밀리는 감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 호는 마지막회입니다~ 2018년 7월부터 시작하여 2022년 10월까지 4년 4개월동안 총 52회분의 자카르타 맛집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자칫 딱딱하고 무미건조한 타향살이 속에서 소소하게 맛집을 찾아다니는 즐거움과 행복감을 많은 독자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비록 개인 사정으로 이번 호에서 맛집 소개를 마무리하게 되었지만, 향후에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과 맛집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지면을 빌려 자카르타 맛집 소개 기회를 주신 한인뉴스 편집부 담당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제 뒤를 이어 새로운 분계서도 소중한 자카르타 맛집 정보를 전해주시길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세요^^



### <식당 정보 : Taste Paradise>

음식 종류 : 중식

가격대 : Rp 600,000 / 2인 기준

영업시간 : 월~일 11:00~14:30/18:00~21:30

주소 : Plaza Indonesia South Gate Lt. 4  
Jl. M. H. Thamrin, Menteng,  
Jakarta

※ Google 참고

## 제 103회 울산 전국체전 재인도네시아 선수단 출정식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는 9월 23일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강당에서 재인도네시아 선수단 출정식을 개최했다. 대한민국 울산에서 2022년 10월 7일(금)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월 13일(목)까지 7일간 열리는 103회 전국체전은 2019년 제 100회 서울 전국체전 이후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로 인해 체전 및 해외동포선수단 경기는 순연(2021년, 대회 성적이 필요한 고등부 경기만 개최)됐다.



이종현 회장은 개회사에서 “목표는 우승이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즐기며 경기에 임하기를 바란다. 교민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한다” 고 말했다.

박태성 대사는 “경기를 마음껏 즐기고 최선을 다해 기량을 펼쳐서 코로나에 지친 우리 교민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주길 바란다. 선수들이 하나되어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의 단결과 결속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선수단을 격려했다.

박재한 한인회장도 격려사를 통해 “우리 선수단끼리 서로 화합하고 우정을 나누며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인도네시아 한인사회가 한마음으로 응원하는 감동의 순간을 기대한다” 고 말했다. 이번 전국체전 후원사인 현대자동차 인도네시아(선수단의 트레이닝복과 티셔츠 후원)의 최윤석 법인장은 “개척정신과 도전정신의 현대의 기업정신과 스포츠 정신이 동일하다. 좋은 결실을 기대한다” 며 선수단을 독려했다.

김진달 단장은 “경기장에서 흘리는 선수의 땀은 인도네시아 교민들의 자긍심이다. 결과에 아쉬움



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이어 방진학 총장의 출정보고, 선수대표(이형진, 장점순)의 선서와 단장에게 단기 전달의 순으로 진행됐다. 출정식을 마치고 인도네시아 선수단은 10월 5일에 선수단(본부임원 22명과 선수 축구 14명, 볼링 12명, 태권도 8명, 테니스 6명, 골프 4명, 탁구 2명, 검도 6명, 스쿼시 2명, 총 54명)과 감독 및 코치 37명, 경기참관인 18명으로 총 131명이 전국체전 출전을 위해 한국으로 떠날 예정이다.

지난 100회 대회에서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는 금메달 5개, 은메달 5개, 동메달 5개를 획득하여 역대 최고의 성적인 해외동포 종합 3위를 차지했다.

# 경남자카르타사무소, 하동차 엑스포와 산청의약 향노화 엑스포 홍보 부스 운영

- 하동차 마시는 방법과 다도 예절 시연회에 대한 높은 관심
- 산청의약 향노화엑스포 기념품 손지압기 경품으로 전달

경상남도 자카르타사무소는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크망 리뽀몰에서 2023 하동차 엑스포와 산청 세계전통의약 향노화엑스포 홍보 부스를 운영하였다.

2023. 5. 4 ~ 6. 3. 경상남도 하동군에서는 차와 함께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실현하기 위해 2023 하동 세계차엑스포가 열리고, 산청군에서는 2023. 9. 15. ~ 10. 19. 세계 각국의 전통의약 체험을 통해 건강과 힐링을 만끽할 수 있는 2023 산청 세계전통의약 향노화엑스포가 열린다. 이 엑스포를 홍보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부스 내에 엑스포 관련 자료를 비치하여 관람객들에게 엑스포를 알리고 행운권 추첨으로 푸짐한 기념품도 전달하였다.

특히 9월 16일(금) 오후 1회, 9월 17일(토)과 18일(일)에는 오전과 오후에 한차례씩 차를 마시는 방법과 다도 예절에 대한 시연회도 개최하였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한국의 다도 전문가를 초빙하여 녹차의 역사와 효능에 대하여 설명하고, 시연회의 단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카르타사무소 현지 직원과 함께 토크쇼 방식으로 재미있게 진행하여 100여명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을 유도하였다.

행사 중간 차에 대한 퀴즈 정답자에 대해서는 경남에서 생산된 화장품을 경품으로 제공하였고, 시연회 이후 부스에서는 관람객에게 올해 생산된 하동 녹차를 마실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였다. 행운권 추첨으로 제공된 산청 세계의약 향노화엑스포의 기념품 손지압기는 휴대용으로 간편하게 건강을 챙길 수 있어 많은 인기를 끌었다.

이 행사는 리뽀몰에서 오픈 10주년 기념행사에 한국 기관의 참여를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경남사무소를 비롯한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 한국관광공사 자카르타지사, 한국콘텐츠진흥원 인도네시아 비즈니스센터 등 4개 기관이 합동으로 9월 13일부터 25일까지 ‘Annyeong Chukje’라는 타이틀로 개최하는 한국페스티벌 행사의 일환이다. 행사기간 동안 한국의 음식과 패션에 대한 체험과 전시, K-POP Dancer, 부채춤 공연, Gugak Sarang(국악 사랑)공연, 태권도시범 등 다양한 공연도 진행된다. 리뽀몰에서는 9월 15일 열린 개막식에서 행사에 참여한 경남사무소를 비롯한 4개 기관에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자카르타사무소의 이번 행사는 9월 25일까지 계속되며, 9월 24일과 25일에 다도 시연회와 시음회를 한번 더 개최할 예정이다. 자카르타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인도네시아 지역 특성상 많은 사람의 왕래가 많은 몰에서 개최되어 내년 개최되는 경남의 국제엑스포에 대한 홍보효과가 컸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자주 개최하여 더 많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차 문화에 대해 소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제공: 경남자카르타 사무소)





떠나야 보이는 것들

## 이방인으로서 다름을 바라보는 자세

글: 손예리(일본어 번역가)

### 미신과 민간요법

인도네시아에선 마속 양인(바람이 들어왔다고 해서 몸살감기와 같은 것)일 때 동전으로 등을 빨강게 될 때까지 긁는다. 혈을 뚫어주어 몸을 따듯하게 해 준다는 인도네시아 전통 민간요법 ‘끄로칸(Kerokan)’이라는 것인데 외국인이 보면 미신처럼 느껴져 깜짝 놀라기도 한다.



<출처: Lukisan Kerokan, Fimela>

미신이 있는 건 한국도 마찬가지다.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일찍 죽는다고 믿어 이를 꺼리고 채웠을 때 바늘로 손을 댄다. 한국의 ‘손가락 따기’ 민간요법은 ‘꼬로칸’ 처럼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한 사람이 아픈 사람의 등을 세게 두들겨 팔을 쓰다듬고 손가락으로 피를 모아 실로 동여맨 후 손톱 아래를 바늘로 찌러 피를 낸다. 손을 바늘로 따서 일시적으로 혈액 순환을 늘려 소화를 돕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의 문화도 외국인이 보면 이상할 수 있다. 그러니 다 상대적인 것이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이 “한국 너네 나라는 왜 그런 걸 믿어?” 라고 조소한다면 우리 기분은 어떨까. 나라가 다르니 문화가 다른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다른 문화를 바라볼 때 ‘왜 저렇게 하지?’ 가 아니라 ‘그런 효과가 있구나.’ 라고 바라보면 다름이 마치 하나의 발견처럼 흥미롭다. 결국 이 ‘다름’ 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는 오로지 개인의 관점과 자세가 결정짓는 것이다.

## 보행자 우선과 먼저 양보하는 교통문화

자카르타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야 할 때가 종종 있는데 백이면 백 모두 먼저 지나가라고 보행자를 우선시해준다. 심지어 아이와 함께 길을 건너려고 서 있으면 가던 길을 돌아와서 자신의 몸으로 막아서며 차와 오토바이를 멈추게 해 주는 분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보행자 우선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한국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배려다. 이곳에선 차들간 서로 양보하는 일도 쉽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오토바이와 자전거족들도 차선을 같이 쓸 수 있는 게 아닐까 싶다.

“인도네시아는 어떤 나라예요?” 라는 질문에 A라는 사람은 안 좋았던 점들만 줄줄이 늘어놓으며 이곳의 ‘이상한’ 것들에 대해 얘기한다. 그러나 B라는 사람은 좋았던 점들을 나열하며 이곳의 ‘신기한’ 것들에 대해 소개한다. 같은 시기 같은 곳에 머무르면서도 마치 다른 나라를 경험한 듯 전혀 다르게 느끼는 것이다. 물론 양쪽 모두 인도네시아의 모습이겠지만 결국 각자가 바라보는 시선과 관점으로 이곳을 바라보고 대하는 것이다.

이곳의 문화를 존중하고 우리와 다름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외국에 사는 사람들의 기본 마음가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다시금 생각해본다.

# “인도네시아어, 현지인처럼 못 해도 괜찮아요”

## 언어가 삶이 될 때

낯선 세계를 용기 있게 여행하는 법 | 김미소 에세이  
김미소 지음 | 한겨레출판사 | 2022년 03월 30일 출간



글: 조연숙 데일리인도네시아 편집장

수카르노하타 공항에 처음 내렸을 때, 들려온 의미를 알 수 없는 소리의 텅어리와 알파벳이지만 읽어지지 않는 글자를 보면서, 이런 게 ‘문맹’ 이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나를 보호해 주던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지고, 내 세계가 나를 둘러싼 몇몇 한국인으로 축소된 느낌이 들었다. 인도네시아라는 새로운 세계는 인도네시아어가 들리는 만큼 조금씩 열렸지만, 그때부터는 내가 인도네시아와 한국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붕 뜬 존재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

### ‘20대’ ‘여성’ ‘외국인’ ‘교수

책 <언어가 삶이 될 때>는 일본에서 ‘20대’ ‘여성’ ‘외국인’ 교수로 살아가면서, 저자 김미소가 그 나라의 언어에 능숙하지 않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당하기도 하지만, 어느 나라와 문화에도 속하지 않는 경계인으로 살면서 언어와 함께, 언어로 세계를 경험하는 이야기이다.

저자 김미소는 대구에서 태어나 자라서,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응용언어학 박사를 취득하고, 일본 다마가와대학에서 ‘공통어로서의 영어 센터’ 전임 교원으로 일하고 있다. 아버지의 재혼으로 베트남 출신 새어머니와 함께 다문화 가정에서 10대와 20대 초반을 보냈고, 정규교육에서 이탈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으로 1년을 보내기도 했다.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하며 영어를 가르쳤고, 지금은 일본에서 비워어민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없는 시간을 짜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되는 답답함, 어떤 자료로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도 알 수가 없는 막막함, 똑바로 말을 못 해서 오해받는 것 같고, 웬지 모르지만 무시당하는 것 같은 기분 나쁨, 내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데서 오는 좌절감!” 저자가 일본어 초보자가 되어 일본에 갑자기 푹 떨어져 겪은 심정인데, 인도네시아에

갑자기 오게 된 한인들도 한두 가지는 겪었을 감정이다.

저자는 해외 이주에 대해 ‘다수 속의 소수로 사는 경험’ 이라고 정의하며, 스스로 새 나라에서 새 언어로 삶을 꾸려가면서 이주여성, 유학생, 이주노동자 등 여러 가지 위치에서 볼 수 있었다고 말한다.

저자는 다양한 환경에서 언어에 능숙해지기도 하고 무기력해지기도 하면서, 언어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언어가 어떻게 삶이 되는지 생생하게 이야기한다.

### **편안한 모국어의 품을 떠나 낯선 단어와 음성 사이를 헤엄치며**

저자는 “외국어 공부도 해외 생활도 경계를 넘어 다니는 일입니다. 편안한 모국어의 품을 떠나서, 낯선 단어와 음성 사이를 헤엄치며, 뒤편지 떠 있는 것을 잡아서 수면 위로 올랐다가 또 다시 가라앉고 좌절하기를 수없이 반복하는 과정입니다.” 라고 말한다.

저자는 이중언어, 정체성, 다양성, 차별 등을 경험한 이야기를 하며, 외국에서 현지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성인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저자는 외국어 배우기를 낯선 세계를 용기 있게 여행하는 것에 비유하고, ‘언어는 우리에게 무엇일까? 우리는 왜 언어를 공부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 저자는 언어를 정복하거나 완성해야 할 ‘대상’ 이 아니라, 나와 다른 것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매개체’ 라고 말한다. 저자는 모국어, 외국어, 외국인라는 표현도 쓰지만 제1 언어, 제2 언어, 비원어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외국어 학습을 책 속의 지식을 단순히 뇌 안으로 가져오는 작업이 아니라, 몸으로 살아내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 **“원어민처럼 말하는 수준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외국어 완성 기준에 대해, 저자는 원어민처럼 말하는 수준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저자는 외국어를 배워서 새로운 곳에서 자신이 만들어가고 싶은 세계를 만들고 그것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그 안에서 기쁘게 여행할 수 있다면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외국어를 배우는 목표를 원어민처럼 말하기가 아닌 ‘해당 언어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냐’ 에 두어야 한다는 것.

외국어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저자는 새로운 사회에 생존하고 동화되기 위해서고, 무엇보다 새로운 사회에서 오롯한 인간으로서 있기 위해서라고 강조한다.

또한 이주한 국가의 언어를 구사하지 못할수록 그리고 이주민 커뮤니티와 멀어질수록 현지 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언어는 학습을 시작한 나이보다는 해당 언어로 쌓은 경험이 더 중요하다” 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미국에서 영어로 안 되는 전화라도 일단 준비해서 걸어보고, 실수하더라도 부딪쳐보고, 없던 취미 생활이라도 만들어서 사람을 만나고, 움츠러들더라도 저자가 하려는 말을 계속했다고 회상했다.

저자는 2019년 2월에는 취업도 계속 실패하고 박사학위 논문 심사에도 계속 떨어지던 시기에 “나는 반드시 좋은 선생이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나 많은 실패를 쌓아왔으니까” 라고 생각할 만큼 낙천적이다.



### “완벽한 영어 같은 건 세상에 없다”

저자는 “완벽한 영어 같은 건 세상에 없다.” 라고 말한다. 영어에는 완벽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절대적인 규칙이 없고, 용례가 쌓여서 규칙이 만들어지고, 규칙 역시도 새로운 용례가 쌓이면서 계속 바뀐다는 것. 또한 영어 용례는 원어민이 쌓는 것보다 비원어민이 쌓는 경우가 훨씬 많고, 상황과 맥락에 따라 새로운 규칙이 생겨나기도 하므로, 정확한 규칙을 지키기보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집중해 상대와 협력하여 의미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한 사람이 처한 위치도 그가 언어를 배우는 데 고려할 점이라고 말한다. 이 사람이 환대받는 위치에 있는지, 멸시받는 위치에 있는지. 익숙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해 더듬더듬 말을 건넬 때 해당 언어를 쓰는 주변 사람들이 친절히 인내심 있게 기다려줄 것 같은지, 혹은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거나 듣지 않으려 할 것 같은지. 말을 잘하지 못하거나 문화를 몰라서 무례를 저질러도 주변 사람들이 상냥하게 알려주거나 이해해 줄 것 같은지, 아니면 찬바람을 쐬 쐬 풍기며 “너희 나라 애들은 다 그래?” 하고 비웃을 것 같은지.

저자는 한국인이 오랜 시간 영어를 공부하지만, 영어로 ‘경험’ 을 쌓은 적은 드물다고 지적하고, 새로운 언어로 쌓은 경험만큼 언어의 세계가 넓어진다고 말한다.

저자는 영어를 배운다는 건 전 세계인과 소통할 수 있는 도구를 익히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른 문화와 충돌하고 서로의 문화에 균열을 내며 세계를 넓혀가는 일이라고 말한다.

나는 저자가 영어와 일본어에 대해 한 말을 인도네시아어로 대치해보고 싶다. 인도네시아어를 배운다는 건 인도네시아인과 소통할 수 있는 도구를 익히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도네시아 문화와 한국문화가 충돌하고 서로의 문화에 균열을 내며 내 세계를 넓혀가는 일이기도 하다고.

이 책을 영어와 인도네시아어 그리고 다른 외국어를 배우려 하지만 방향을 못 잡고 있거나 실패한 사람들에게 권한다. (끝)





## 1 한국 사람은 한국 의사에게! 제대로 상담받고 치료받으세요!

- 인종이나 유전자가 다른 타국의 의사들은 정확한 진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만성질환 우수기관 선정, 고혈압·당뇨 국내 최고의 명의에게 진료 받아보세요.



## 2 검사 데이터를 나만의 주치의와 함께 관리해보세요!

- 혈압·혈당 수치를 평생 누적 관리하고, 데이터를 통해 식습관까지 개선하세요.
- 환자의 건강검진 기록을 연동하여, 질환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 받으세요.



## 3 만성질환, 이젠 혼자 말고 Welchek와 함께 하세요!

- 수치가 들쭉 날쭉 하고, 높게 나올 때 걱정하지 마시고, Welchek로 상담 받으세요.
- 환자의 상태, 복약여부를 언제, 어디서나 가족이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Special Event

### Welchek 비대면 진료를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께!

자가혈당측정기 리브레를  
무료로 증정드립니다.

FreeStyle Libre 

혈당 측정 바늘로 꼭? NO!  
이젠 간단하게 터치 하세요!





## Batavia 그리고 Cafe Batavia

글. 조은아(한인니문화연구원 자카르타역사연구팀장)

**최** 근 자카르타 아니스 바스웨단 *Anies Baswedan* 주지사는 꼬따 뚜아 *Kota Tua* (오래된 도시, 옛 도시)의 지역 명칭을 바타비아 *Batavia* 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했다.

아니스 주지사는 이 지역의 리모델링 작업을 통해, 자전거와 보행자 전용도로를 활성화시켜 저공해 구역으로 만들고 과거를 반영하는 미래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지역을 중심으로 근처 해양박물관 *Maritime Museum*의 고질적인 침수 문제 해결과 동쪽 깔리 브사르 *Kali Besar*의 정비, Jl. Lada와 Plaza BEOS 주변의 보행로 설치, 꾸니르 *Kampung susun Kunir*와 똥꼴 *Kampung susun Tongkol*, 아쿠아리움 *Kampung Aquarium* 지역의 정비 등 바타비아를 중심으로 한 6각형 모양의 마켓을 형성시키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MRT 자카르타와 바타비아의 통합 교통 시스템 완성을 목표로 이미 2020년 *Harmoni-Mangga Besar* 구간 건설 계약을 마쳤고, 두 번째 단계로 자카르타 남쪽에서 안쭈 *Ancol* 까지의 연결을 진

행중이며, 자카르타 남쪽에서 북쪽,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어지는 라인, 파트마와띠 *Fatmawati*에서 따만 미니 *Taman mini* 연결 구간 등 모두 2028년까지 완성을 목표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자카르타 주의회에서는 바타비아로 공식 명칭을 바꾸는 데 반대의견도 있다. ‘Batavia’란 과거 식민지 시대에 사용했던 명칭이라는 이유에서다.

‘Batavia’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이하 VOC)가 자야카르타 왕자를 무릎 꿇리고 이 지역을 점령하면서 350여년 식민시대를 대신했던 이름임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아니스 주지사가 “바타비아 지역은 역사가 가득한 곳이다. 이곳에 오는 것은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를 지향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하던 그 자리에는 주인도네시아 일본 대사가 함께해 도시 발전 공사에 아니스 주지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를 보고 있자니 문득 파타힐라 광장이 그리워졌다.



## Batavia 탄생 그리고 사라짐...

1611년 VOC는 자야카르타에 무역 사무소 건설을 핑계로 석조를 기초로 한 목조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건설 허가를 받는다. 그런 다음 그들은 찰리웅 Ciliwung 강 동쪽 강어귀 근처에 약 1.5 헥타르의 땅을 임대해 사무실, 창고 및 거주지를 짓고 본관의 이름을 따서 하우스 Nassau Huis라고 지었다.

안 피터스 준 쿤 Jan Pieterszoon Coen이 총독이 되었을 때(1618-1623) 그는 Nassau Huis와 같은 구조인 모리셔스 하우스 Mauritius Huis를 건설하고 여러 개의 대포가 배치된 높은 돌담을 쌓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그들이 빌린 지역을 둘러싸고 7미터 높이의 성벽을 두르고 견고한 요새로 만들어 자야카르타를 인수할 준비를 하기 시작한다. ‘무역을 하자’라는 빌미로, 목조 건물 허가를 받아 건물을 짓고, 성벽을 두르고, 온러스트에 무역을 위한 선박 수리소와 조선소, 병원 등을 지으며 그들은 철저히 정복을 준비했다.

1619년 5월 30일 이 요새의 기슭에서 VOC는 자신들에게 무역을 허가한 자야카르타를 공격하여 궁전과 거의 모든 건물을 불태웠다. 반 목조 건물에서 시작한 그들은 마침내 도시 전체를 장악했다. 처음에 Coen은 이 도시의 이름을 뉴 홀랜드아 Nieuwe Hollandia(새로운 네덜란드)로 지정하고 싶었지만 네덜란드의 De Heeren Zeventien은 Batavians를 기념하여 이 도시의 이름을 Batavia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바타비아Batavia’라는 이름은 네덜란드의 용감한 옛 부족명이었다.

기원전 1세기 후반부터 AD 3세기까지 로마인들이 Batavia라고 불렀던, 현재 네덜란드 라인강 삼각주 주변에 살던 고대 게르만 부족인 바타비 Batavi 부족에서 따온 이름이다.

16세기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고대 이야기와 기원 신화에는 바타비 부족들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합스부르크 군주국(지금의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싸웠던 80여년(1567년~1648년 독립전쟁) 동안 자신들은 신화 속에 등장하는 바타비 민족을 닮아 용감하고 근면하고 불굴의 의지를 가졌다고 믿게 되었다.

사실, 1795년부터 1806년까지 네덜란드 지역에 존재했던 단명한 그들의 ‘바타비아 공화국’도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앞선 1619년, 지구 반대편 어느 섬나라 작은 항구 하나를 식민지화하면서 자신들의 고대 신화에 등장하는 용감한 민족 Batavi의 이름을 가져왔다. 그리고 이 지역의 주민들을 오랑 브따위 Orang Betawi로 불렀다.

자신들의 독립을 향한 뜨거운 피의 근원이라 믿었던 자신들의 조상 부족의 이름을 자신들이 점령한 식민지에 사용했던 것이다.

1621년 3월 4일, Stad Batavia ‘바타비아 시’ 정부가 구성되었다. 자야카르타는 철저히 사라졌고 그들만의 새 건축물과 창고 등을 짓고 해자, 철조망, 튼튼한 기둥 그리고 요새로 도시를 전체를 둘러쌌다. 1650년까지 도시 건설은 계속되었으며 Batavia 시는 처음 정복했을 때보다 3배나 확장되었다.

하지만 본국과 바타비아와의 거리는 너무도 멀었다. 80여년간의 독립 전쟁을 마치고 끝이어 1652년 제1차 ~ 1784년 제4차 영란전쟁(영국과 네덜란드간의 전쟁)으로 네덜란드의 국력은 많이 꺾어졌고 특히 해상 교역에 있어 우위를 잃었다. 이로 인해 해상 무역으로 나라의 자금을 뒷받침하던 VOC는 동인도의 거의 모든 교역소에서 영국에 의해 무역의 길이 막혔고, 심지어 1797년에는 영국 해군에 의해 바타비아 항구조차 봉쇄당하고 만다. 그리고 1799년 파산하여 국영화된다. 1800년, 네덜란드는 ‘네덜란드령 동인도 바타비아’ 로 네덜란드 정부 직접 통치하에 두게 된다.

전쟁의 승리로 기가 바짝 오른 영국은 바타비아만에 있던 온러스트섬의 조선소 등을 파괴하고 바타비아를 손아귀에 넣게 되는 순간을 꿈꿨지만, 네덜란드는 불굴의 바타비 민족 정신으로 바타비아만큼은 끝까지 지켜내고 만다.

그들의 바타비 정신은 19세기, 수마트라섬, 자와섬, 보르네오섬, 소순다 열도, 술라웨시섬, 말루쿠 제도, 파푸아섬 등 인도네시아에 위치한 여러 섬들을 식민지화 하였으며 20세기 초반에는 거의 모든 인도네시아 지역이 ‘네덜란드령 동인도’가 되어버렸다.

1905년 4월 1일, 네덜란드 정부 통치의 Stad Batavia는 Gemeente Batavia(지역 자치 도시)로 변경되었다. 즉, 정부 차원의 관리에서 자율적으로 시 정부의 평의회가 중앙 정부와 별도의 자금 관리를 관리, 사용할 수 있도록 자치 도시 시스템으로 전환하게 된다. 그러나 1935년 1월 8일, Stad Gemeente Batavia로 다시 변경되었다.

1942년 일제 강점 이후 일본군은 자신들이 이곳을 점령했다는 것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바타비아’ 라는 이름을 ‘자카르타’ 로 바꾸었다. ‘바타비아’ 는 그렇게 사라지고 일제에 의해 ‘자카르타’ 가 되었다.

그리고 1945년 8월 17일 일본이 물러간 이후에 네덜란드는 여전히 인도네시아의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3년여의 인도네시아 독립 전쟁 끝에 1949년 12월 27일, 마침내 인도네시아의 독립과 주권을 인정하게 된다.





## 그리고 남은 카페 ‘바타비아’

사라진 바타비아의 심장부는 역시 파타힐라 광장이었다.

파타힐라 광장은 늘 활기가 넘친다. 허접하지만 화려한 색상으로 눈을 현혹시키는 연 장사와 색색의 리본과 꽃으로 장식한 자전거를 대여해 주는 곳이 제일 눈에 띈다. 거리 악사들의 음악과 춤추는 사람들,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방문 코스가 된지 오래다.

하지만 그곳은 식민시절 가장 잔혹했던 역사의 중심부였고, 거의 매일 죄수들의 기도 소리와 형벌을 받는 자들의 고통스런 비명으로 가득했던 곳이었다. 분명 식민지 시절 가장 처절했던 역사의 기록이고, 형벌과 처형이 이뤄졌던 자리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픈 역사를 빨리 지우고 새 건물을 지어 올리기 바쁘지만 바타비아 만큼은 그대로 보존된 그 위에 즐거움과 화려함 등 식민지 시대를 상상할 수도 없는 단어들을 얹어 놓았다. 물론 식민 이전의 상황도 서로 다르지만 식민 시대 이후 지배자였던 자들의 뒷처리 태도가 분명 달랐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 광장을 오롯이 내려다 보이는 곳은 지금의 역사 박물관의 정면 창문과 건너편에 자리한 ‘카페 바타비아’다.

‘카페 바타비아’ Cafe Batavia 건물은 1830년에 지어졌다.

이 파타힐라 광장 안에서 자카르타 역사박물관으로 재탄생한 바타비아 구 시청 건물에 이어 두 번째로 오래된 건물이다. (광장의 다른 건물들은 지진과 전쟁 등 각기의 이유로 형태를 남지 않을 정도로 부서졌다가 20세기에 재건축된 건물들이다.)

2층 건물인 이곳은 1층에는 바, 공연장, 라운지 공간이 있으며 흡연석이다. 이 바의 이름은 ‘Winston Churchill’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의 대형 사진이 걸려있다). 1996년 Newsweek International 선정, ‘세계 최고의 바’로 꼽힌 바이기도 하며 이후 카페는 여러 매체를 통해 소개되었고 여러 번 ‘최고의 바’ ‘최고의 레스토랑’ ‘세계 100대 카페’로 선정되었다.

자바산 티크나무 계단의 빼격임을 들으며 위층으로 올라가면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메인 다이닝 홀인 ‘그랜드 살롱 Grand Salon’이 있다.

건물의 갤러리 부분인 윗층에는 나무 덧문이 달린 대형 창문들이 있어 안으로 따뜻한 햇빛이 가득 들어올 뿐 아니라 그 창을 액자 삼아 늘 파타힐라 광장을 바라볼 수 있다.

이 건물은 당시 네덜란드 고위 관료들의 거주지, 네덜란드 총독의 사무실, 창고 등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1884년경부터 몇 년 동안 건물의 1층은 무역 회사인 E. Dunlop & Co.가 이곳에서 도매 사업을 하였고, 이후 이슬람교도를 주선한 ‘Kongsi Tiga – Kantor Kapal Hadji’ (증기선으로 바타비아에서 중동으로 순례자들을 보내던 사업체)의 사무실로도 사용되었다.

1991년 건물에는 프랑스인 Paul Hassan에 의해 Paulo Gallery가 열리기도 하였다.

1993년에 호주인 Graham James가 건물을 구입해 2~3년 동안 건물을 복원하고 레스토랑을 열었다.

Cafe Batavia는 1930년대를 테마로 고풍스러운 느낌의 바닥, 벽을 가득 메운 액자들과 유럽의 네덜란드가 꿈꿨던 ‘열대의 네덜란드’가 느껴지는 유럽풍 인테리어가 웅장하기까지 하다.

자카르타가 된 이후 파타힐라의 보존에 힘썼던 Ali Sadikin 자카르타 시장의 초상화를 비롯해 1805년부터 1992년까지의 바타비아의 총독과 시장의 초상화, 이 카페를 다녀간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등 세계적인 유명인사, 수카르노 전 대통령, 인도네시아 대표 여성 지도자 까르띠니 등 인도네시아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인물들 등 1,000여점 이상의 사진들이 벽마다 가득 채우고 있다. 모두 주인장의 개인 소장품이다.

아니스 주지사의 뉴스를 보면서 카페 바타비아를 떠올린 것은 카페 바타비아야 말로 아니스 주지사가 말한 것처럼, 미래 도시의 과거 상징물 같은 곳이기 때문이다. 화려했던 지배자들의 삶, 그리고 사라지고 혹은 기억된 참혹한 역사들...

자신들의 독립투지를 부추겼던 ‘바타비’와 식민지 ‘바타비아’, 50여년 동안 사용했던 ‘꼬따뚜아’에서 다시 식민지 시대의 이름으로 돌아온 ‘바타비아’.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자카르타’로 바꿨던 또 다른 점령자 일본과 재개발하겠다는 아니스 주지사의 ‘꿈의 바타비아’ ...

모든 것이 아이러니하게 마주치는 곳이다.

감수 : 사공경

참고문헌 :

SEA TODAY

Batavia, 1740: menyisir jejak Betawi /

Windoro Adi

Kompasiana.com

Gimon CA. Sejarah Indonesia : An Online Timeline of Indonesian History. /gimonca.com

A History of Modern Indonesia since c.1200

Palgrave Macmillan./ Ricklef MC.

Jalan Jalan Jakarta /사공경



## ‘2022 한국문화의 달(K-Festival)’ 대면 개최

- 케이팝, 공연, 전시, 한식에 이어 소비재 홍보까지 -

오는 9월 15일(목)부터 11월 20일(일)까지 자카르타, 반둥, 족자카르타 등 주요 도시에서 2022 한국 문화의 달 행사가 개최된다.

2022 한국문화의 달은 주인 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주인도네시아한국문화원, 한국관광공사 자카르타지사, 한국콘텐츠진흥원 인도네시아 비즈니스센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카르타지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자카르타무역관, 한국무역협회 자카르타지사, 아시아나항공과 CGV 인도네시아 및 문화예술총연합회(문예총)가 협력하여 문화·예술·관광·콘텐츠·한식·상품 등 7개 분야에서 20여개의 행사를 선보인다.

개막식 첫 공식행사로 오는 9월 16일(금) Ciputra Art-preneur Theater에서 국립부산국악원 초청, <Lagu & Tari Tradisional Korea> 전통공연이 펼쳐진다.

자세한 내용은 유관기관별 소셜미디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A GREAT JOURNEY TO ENJOY KOREA

## Korea 2022 Festival

15<sup>th</sup> Sep ~ 20<sup>th</sup> Nov 2022

**EXHIBITION**

- K-Maestro** | 23 Sep - 28 Oct | Museum Nasional
- Korean Ink Art** | 5 - 30 Oct | Pacific Place Mall
- K-Book : Beyond Hallyu** | 7 - 8 Oct | Ibis Palace Mall
- Discovery K-Heritage** | 7 - 8 Oct | Ibis Palace Mall

**PERFORMANCE**

- Lagu & Tari Traditional Korea** | 16 Sep | Ciputra Artpreneur Theater
- Non Verbal 'BIBAP'** | 27 Sep | Ibis Palace
- STAGE K-POP: Assemble** | 19 - 20 Nov | KOREA 360

**CONTENT**

- Korea-Indonesia Film Festival** | 29 Sep - 2 Oct | CGV Cinema Jakarta, Bandung, Jogjakarta, Malang
- Annyeong Chaekje** | 15 - 25 Sep | Lippo Mall Remang

**TOURISM**

- Hybrid Travel Fair** | 27 - 30 Oct | Senayan City Mall

**FOOD**

- K-Food consumer promotions with the Indonesian university festival** | 20 - 21 Oct | Univ. Gadjah Mada

**LIFE**

- KOREA Premium Products Fair 2022** | 7 - 13 Nov | JCC, Lotte Shopping Avenue
- K-Style in ASEAN** | 19 - 27 Nov | KOREA 360

**EVENT**

- Event 'K-Passport Season 3'** | 12 Sep - 30 Nov | SPS

MARK YOUR K-PASSPORT AND WIN FREE TICKET TO KOREA

## 이렇게 좋은 걸기! 안 할 수가 있나요?

헬렌 하르소노 (Heylen Harsono)

인도네시아어로 mager (마저르)라는 표현이 있다. Malas bergerak, 직역하면 ‘움직이기 싫다, 귀찮다’ 라는 뜻이다.

늘 누워있거나 앉아있기만 하고 걷지 않으면, 노화를 앞당길 수 밖에 없다.

고대 그리스 의사였던 히포크라테스도 말했다. “걷는 것만큼 좋은 보약은 없다.”

하루 15분에서 30분만 꾸준히 걸어도 건강은 물론 외모도 매력적으로 가꿀 수 있다. 돈도 들지 않는다.

꾸준히 걷는 건 발 건강에도 중요하다. 관절이나 뼈, 근육에도 중요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발은 그야말로 신체 활동의 근간이다.

왜 걸어야 할까? 신체 근육의 50%가 다리 근육이다. 걷는 활동이 에너지 소모도 많다. 신체 활동의 70%가 두 다리로 하는 활동이다. 잘 걸으면, 순환도 잘 된다. 발이 건강하면 몸 전체가 건강하다는 뜻이다.

발에서 특히 중요한 부위는 복사뼈, 발꿈치, 발바닥이다. 복사뼈는 몸의 무게를 받쳐주는 발목의 한 부위다. 복사뼈는 발바닥과 종아리 근육이 움직이는 데 운동축과 같은 역할을 한다. 발 뒷쪽의 균형을 잡는 발꿈치는 신경과 근육으로 둘러싸여 있다. 발바닥은 신체 중 가장 피부층이 두껍다. 털도 없고 색소도 없어 피부가 부드러우며 색도 연한 대신, 땀은 많이 배출된다. 발바닥에는 말초신경이 있어 가려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치료 목적으로 발바닥을 마사지하거나 자극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걸기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정말 많다.

1.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니 심장병 예방을 할 수가 있다.
2. 걸으면 기분 전환이 되어 생각을 차분히 가라앉힐 수 있다.
3. 뇌를 건강하게 지켜주고, 치매 예방도 해준다.
4. 시력도 좋아진다. 녹내장 개선 효과가 있다.
5. 폐활량을 키울 수 있다.
6.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된다. 하루 만보!



7. 체장기능개선에 도움이 된다.
8. 당뇨를 예방한다. 활발한 보행만으로 혈당을 조절할 수 있을 때는 약이 필요 없다.
9. 뇌졸중 위험을 줄인다.
10. 심장병 위험을 줄인다.
11. 신진대사를 키울 수 있고, 몸무게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12. 몸무게 감량 효과를 볼 수 있다.
13. 뼈와 관절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14. 소화를 촉진한다.
15. 척추에 혈액순환이 되면서 자세가 바르게 되니, 등이 아픈 사람에게는 걷는 게 도움이 된다.
16. 골다공증을 예방한다.

의수·보조기 사업을 하는 제프리 씨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걸어야 한다” 고 말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솔로(Solo)와 브카시(Bekasi)에서 의수를 만드는데, 아무리 잘 만든 의수라 해도 인간의 다리에 비할 바가 아니다. 제프리 씨는 독일에서 유학을 했다. 의수 기술이 좋은 독일도, 사람의 다리 보다 더 나은 다리는 만들 수가 없단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을 사랑하고 가꾸어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보자!



(번역: 민선희)

## ‘빨리빨리’에 대한 고찰



김준규 시인 / 수필가 / 한인문인협회 회장

jinn.kim@outlook.com



서양 식당에 가보면 어리둥절할 때가 있다. 한 끼 식사를 위해서 하얀 식탁보 위에 수북이 쌓인 포크와 나이프, 스푼 등은 어디에 쓰이는지 헷갈릴 때가 있다. 숟가락과 젓가락 하나면 해결되는 우리의 식사 문화와는 사뭇 대조적이다. 식사를 빨리하기로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을 빼놓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민족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오롯이 지켜내며 질경이처럼 살았다. 그러나 끊임없는 외세의 잦은 침략과 조공, 양반 계급이 자행하는 수탈의 역사 속에서 일반 백성들은 계속되는 궁핍과 배고픔을 겪으며 살아 왔다. 서양의 식사 문화가 긴 시간 대화와 품위가 깃든 문화라면 배고픔에 시달린 우리의 식사 문화는 단시간 내 공복을 채우는데 익숙해 있다. 이러한 사회 환경은 음식을 빨리 먹는 문화로 자연스럽게 발전했을 것이다. 강아지가 먹이에 집중할 때는 누구도 접근을 허락하지 않는다. 동물들의 생존을 위한 우선순위는 먹이 활동이다. 선점을 위한 자위적 반응은 필연이 아닐까?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고 한다. 속담의 어원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 간접으로 관련이 있다는 생각도 지울 수 없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난과 배고픔 앞에 인정사정 볼 것 없는 것은 비단 동물의 본능 뿐이겠는가? 사람도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위한 일이라면 체면이나 양심 따윈 불문율에 속한다. 선진국과 후진국 관료들의 부패 정도를 비교하면 확연히 알 수 있다.

사촌이 땅을 사면 경쟁에서 2등으로 밀리는데 대한 불안감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보다 더 부지런히 뛰어왔는지 모른다. 또한 간절하고 절실한 생존의 욕구가 우리 사회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일정부분 한몫 했으리란 긍정적 자부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서양과 백 년 이상 뒤떨어진 과학으로 무엇을 어찌 할 수 있단 말인가! 기초과학이 전무이던 우리나라의 현실은 참담한 지경이었다. 기초 과학으로 노벨상을 독차지하는 선진 국가들이 부럽기만 할뿐 그림의 떡이었다. 배고파 보라! 이 눈치, 저 눈치 볼 겨를 없다. 과학의 기초를 건너뛰고 그나마 산업생산의 초보적 단계인 노동 집약산업으로 근대화 물결에 합류한 우리나라의 산업은 70년대 이후 눈부시게 성장 하였다. 그러한 인적자원의 풍부한 경험으로 우리는 생산기술 부문에서도 세계적 수준에 다다른 적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동집약 산업은 이미 사양길로 접어든지 오래되었다. 이제는 아이티(IT)와 첨단 산업 등 이른바 4차 산업의 중심에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그동안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억척같이 살아 온 것 같다. 공복에 영양가 없는 밥을 채우던 시대는 지나가고 과대한 칼로리의 섭취로 각종 비만과 성인병의 위험에 노출되는 세상이 되었다. 어느덧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동안 선진문화에 익숙해져 있고 삶의 질은 고급화되어 가고 있다. 한편 남의나라 기술을 모방해서 이룩한 생산기술은 국가 경쟁력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 위기라고 하는 공동의 인식이 국가와 기업에서 시작되었고, 엄청난 양의 연구 개발비의 투자로 많은 분야에서 이미 독창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우리의 스마트폰과 가전은 세계 시장을 휩쓸고, 서양에서 들어온 팝송을 들으며 열광하던 세대는 모방을 넘어서 아이돌이나 걸그룹이라는 독특한 문화 콘텐츠도 탄생시켰다. 바야흐로 전 세계인이 우리가 개발한 K팝인 춤과 노래를 따라하는 시대로 바뀐 것이다. 세계 수학경시대회에서 연속 우승할 정도로 한국인은 타고난 천재적 기질도 있지만 부지런한 국민성과 빨리빨리의 근성이 낳은 기적의 성과가 아니겠는가! 서양 사람들의 음주 문화는 맥주 한잔이나 양주한잔을 놓고 긴 시간 대화를 즐기는 반면 우리는 단시간 내 많은 술을 마시고 빨리 취하는 것을 선호하는 문화이다. 빨리 먹고 포만감을 즐기는 우리나라 사람의 위암 발병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통계는 시사 하는 바 적지 않다. 폭음 폭식과 빨리빨리의 음식 문화가 낳은 부작용이다.

사랑도 너무 빨리빨리하다 보니 오래가지 못하고 빨리 끝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한다. 꼭꼭 눌러 절제된 사랑으로 진정한 영혼에 불을 지피고 느리게 천천히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어 본다.



# 계단

원작: 이창호

작가: 이세림(JIKS, 10학년)

# 계단

원작: 이창호

작가: 이세림(JIKS, 10학년)



## [제1장. 골목에 대한 오마주]

말간 얼굴로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골목길이 뭐야?”

아이들이 툭 던진 질문 한마디에 어느새 저는 40년 전 뛰놀던 그 골목에 섭니다. 심장의 두근거림과는 결을 달리하는 잔잔한 물결, 추억을 회상하며 대답합니다.

“동네에 난 셋길이지. 손바닥의 손금처럼, 섬과 섬을 연결시켜주는 뱃길처럼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길쭉한 고리 같은 길이야.”

‘골목길’이라는 말을 들으면 저도 모르게 애처로운 미소를 짓나 봅니다. 하늘을 찌를 듯 빌딩들

이 솟아나고 ‘외부인 출입 금지’ 표지판이 나붙은 담이 둘러쳐지며 골목길은 점점 사람들에게 잊혀져 갑니다. 하지만 제 기억 속의 골목길은 친구들과 몇 시간을 뛰어다녀도 지치지 않는 추억의 장소로 남았습니다. 골목길을 울리는 딱지 소리, 수국처럼 환한 웃음이 핀 얼굴들, 구슬을 따서 환호하는 아이와 잃은 자의 소리 없는 아우성. 내 마음속 골목길 풍경은 그 어떤 시와 그림보다도 아름답습니다.

‘다방구’라는 술래잡기를 아십니까? 들키지 않으려 숨을 참고 속임수도 써 보지만, 눈치 없이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를 술래가 놓칠 리 없습니다. 하나 둘 흩어지는 동네 아이들. 술래가 된 저는 흩어지는 친구들의 뒷모습을 반짝이는 눈으로 쫓습니다. 시끌벅적하던 골목길이 유일하게 고요해지는 순간입니다. 바람 따라 사그락사그락 움직이는 나뭇잎 소리만 들립니다. 쪽빛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는 소리조차 들리는 듯합니다. 숨을 참으며 키득대는 웃음소리를 시작으로 여기저기 웃음이 터집니다. 술래인 저도 따라 웃습니다. 웃음을 삼키며 다시 친구들을 찾아 나섭니다. 발뒤꿈치를 들고 후미진 골목을 휘 둘러봅니다. 스산한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이 바닥에 안착할 뿐입니



다. 아이들이 많이 숨는 수레 뒤로 다가간 저는 마침내 외칩니다. 사냥에 성공한 포식자의 목소리로 “찾았다!”

“다방구!” 를 외치다 보면 어느새 날이 저물고 푸른 달이 고개를 비쭉 내뱉습니다. 다음날도 아이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골목길에 다시 모입니다. 흙바닥에 쪼그려 앉아 고사리손으로 유리구슬을 쏟아냅니다. 자연스레 앉은 순서대로 차례가 정해집니다. 또르르 굴러간 유리구슬이 길 위에 도장을 찍어댑니다.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나온 유리구슬은 다른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목직해진 구슬 주머니를 짚그락거리며 친구들에게 구슬을 파는 아이도 있습니다.

달콤쌉싸름한 맛이 나던 달고나 가게를 지나면 번데기 장사꾼과 옛장수, 빨간 국물이 일품이던 떡볶이집이 나타납니다. 주인 아주머니 몰래 떡 하나를 날름 집어 먹던 재미. 알면서도 모른 척 해주던 주인 아주머니의 넉넉한 인심은 도무지 잊혀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 후에도 생생히 떠오르는 나의 아름다운 추억들.

## [제2장. 나의 어린 시절에게]

떡볶이가 싫어지는 나이, 저에게도 사춘기가 찾아옵니다. 유리창 너머의 세상은 햇빛이 짹짹하고 밝은데, 사춘기 소년의 마음 속에는 비만 내립니다. 가족들의 옷차림과 말투, 헤어스타일을 보면 저도 모르게 화가 치솟아 오릅니다. 그래서 집을 나가기로 결심합니다. 혼자 걷는 시간을 ‘자유’라 생각하는 것도 잠시, 뱃속을 울리는 꼬르륵 소리에 ‘현실’과 마주합니다. 주머니 속에는 돈 한푼 없고 머릿속에 온갖 음식들이 뚝뚝 떠다닙니다. 떡볶이, 자장면, 돈까스, 어묵, 찜빵... 가게 진열장 속의 음식들은 왜 그리 윤기가 흐르는 걸까요.



‘집 나오면 고생’이라는 삶의 진리를 배운 저는 결국 버스 타면 30분인 거리를 빈속으로 몇 시간을 걸어 옵니다. 다음날, 터덜터덜 걸어 등교를 합니다. 아직 어지럽고 기운이 없습니다. 무기력을 감당할 시간도 없이 저 멀리 선생님이 성큼성큼 걸어옵니다. 만화에서나 불법한 저승사자처럼 검은 오라(aura)를 뿜으며 다가온 선생님이 갈매기 눈썹을 꿈틀거리며 입을 엽니다. 역시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니 도왔나? 어제 학교는 왜 안 나왔는데? 얼른 어무니 모시고 온나!”

굵은 목소리에 기가 눌린 저는 학교 종소리가 울리자마자 집에 옵니다. 어머니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그 어떤 선택지도 오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집에 와보니 어머니는 벌써 준비를 마치고 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무 말 없이 가방을 챙겨 앞서가는 어머니는 무표정으로 일관하며 말 한마디 건네지 않습니다. 가출을 한 이유도 묻지 않고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어머니는 선생님에게 인사를 하며 교실로 들어갑니다. 언제나 당당하시던 어머니의 발걸음이 자식의 잘못 앞에서 초라해집니다. 선생님께 고개를 숙이며 잘못 가르친 당신의 탓이라며 자책합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수십 대의 매를 맞았을 때보다도 더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반항들을 주마등처럼 떠올리며 반성을 합니다. 그렇게 제 사춘기의 마지막 한 장은 마무리됩니다.

### [제3장. 슬기로운 사회생활]



또래 친구들은 다 대학에 있을 나이에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며 인생의 새로운 장을 펼칩니다. 저 역시 대학에 가고 싶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일을 못 보게 되고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었지만, 현실의 벽을 마주하며 선택한 길입니다. 부산을 떠나 창원에서 시작한 저의 직장 생활은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쉬지 않고 울려대는 전화기와 끊임없이 밀려드는 불만 섞인 목소리들. 사장은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는지 항상 쥐꼬리만 한 월급만 제 손에 쥐여줍니다. 소위 말하는 ‘부자’가 되고 싶은 저에게는 봉투에 들어간 돈이 더 적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내밀며 사업이란 ‘새로운 도전’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회사에서 배운 기술을 십분 활용해 사업을 키우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IMF라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옵니다. 하늘은 제가 부자가 되는 꼴을 못 보겠나 봅니다. 성공한 인생 좀 살겠다는데 제가 운이 없나 봅니다. 결국 저는 다음을 기약하며 장사를 접습니다. 백수로 사는 건 당연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매일 밥 먹듯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사업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한참을 고민해도 답은 없습니다. 답이 있기는 한 걸까요? 할 수 없이 저는 이

질문에 백지를 내며 다시 회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인의 소개로 얼굴만큼 마음씨도 어여쁜 한 여인을 만나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 [제4장. 하나로 맺어진 그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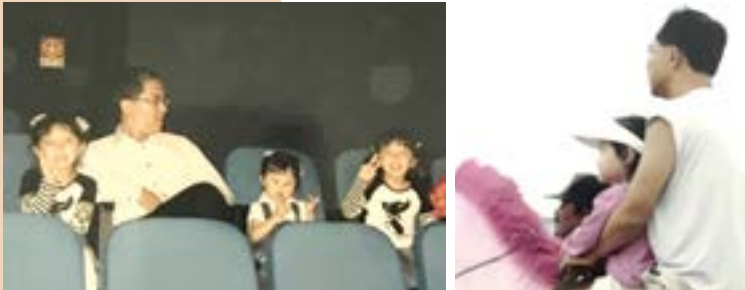
결혼하고 쌍둥이 아이를 가지며 저에게 ‘아빠’라는 두 번째 이름이 생겼습니다. 한 명도 신기했는데 쌍둥이라니! 하지만 기분이 두 배로 좋습니다. 비록 태어나자마자 본 아이들의 얼굴은 엄마의 뱃속에서 나온 직후라 주름으로 주글주글했지만 제 눈에는 천사처럼 예뻐 보였습니다.

곤하게 잠만 자는 신생아 시절이 지나자,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랍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저는 아림, 나림, 세림이가 나쁜 길로 새지 않도록 가르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다고 ‘착한 친구 사귀어라’, ‘사고 치지 마라’, ‘착하게 좀 살아라’ 등의 말은 일체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한들, 어차피 잔소리로 받아들여 듣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곁에서 아이들의 삶을 지켜봅니다. 그러다가 좀 빛나간 듯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발견하면 그때 충고를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아빠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가 줄 수 없는 무언가를 아빠는 아이에게 줄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엄마라도 모든 것을 다 줄 수는 없기에 아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생활을 묵묵히 지켜보다 보면 자식들이 자랑스러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지인들을 보면 억지로 아이를 공부시키며 트러블이 생기기기도 하는데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들이 고맙습니다. ‘스스로 살아갈 힘’을 찾아가는 모습이 나를 흐뭇하게 합니다.

어릴 때 인도네시아 와서 적응하기 힘들었을 텐데 힘든 내색 하지 않고 학교 열심히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일상을 보면, 딸만큼은 누구보다 잘 키웠다고 자부합니다. 가끔은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

다고 느끼기는 합니다. (웃음) 예를 들어 힘들게 일 마치고 퇴근했는데 아무도 저를 반겨주지 않을 때, 아이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투명한 간 취급을 받을 때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사나?”란 생각도 들지만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건 단연 가족입니다.



회사에 다니고 사회생활을 하면 힘들고 많은 위기를 마주합니다. 모든 일이 다 제 마음대로 풀리지 않고, 어디를 가든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포기를 하면 아내와 아이들이 모두 힘들어지는 모습을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그래서 든든한 가장이 되려고 포기하지 않고 버팁니다.

가족은 어떤 상황에서도 가족인가 봅니다. 가끔은 대판 싸우고 화나서 말도 안 하지만, 마지막에는 서로 간의 사랑이 모든 갈등을 해결해줍니다. 그러니까 가족이고, 그러기에 가족이라는 말이 잘 어울립니다. 없으면 허전하고, 특별한 사랑이 존재하는 그런 공동체. 저는 아내와 세 아이들 아람, 나림, 세림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꼬리표를 달아주려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족’이라는 브랜드.

## [제5장. 세상의 비밀]

사춘기에 가출하고 남들과는 조금 다른 길을 걸었지만 현재라는 시간을 열심히 살아가는 저를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누구는 겸손함을 모르나며 비

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아이들을 위해서 타국 생활을 묵묵히 버티고 있는 저는 칭찬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식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떳떳하게 살게 해주려는 일념 하나로 업무 스트레스를 참아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다사다난한 일들을 많이 겪었고 포기할 생각도 수없이 했지만, 결국에는 건디는 제가 안쓰러우면서 대견스럽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배운 것도 많습니다.

첫째, 세상은 절대로 ‘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항상 자신의 의견만이 옳다고 밀어붙여서는 안 되고 남의 생각도 수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타인에게 배려 받기를 바라는 만큼 자신이 먼저 배려할 줄 알아야 하고, 자신을 좋아해 주길 바라는 만큼 먼저 그 사람을 좋아해야 한다는 것을. 둘째, 모든 사람이 저와 같지 않습니다. 각기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해서는 안 되며 최대한 들어주고 공감해줘야 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에게 맞추고, 다른 사람도 저에게 맞추고, 서로 하나씩 맞춰가면 행복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모두가 저를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는 저와 성격이 안 맞아서 싫어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끌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소한 거 하나하나 다 마음속에 담으면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낙관적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하게 세상을 사는 방법입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이가 들고, 아이들이 모두 한국에 가게 되면 ‘나만의 삶’이라는 신뜻한 출발을 하고 싶습니다. 그때가 되면 제가 인생을 통해 배운 값진 경험들이 친구처럼 저를 도울 거라고 믿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상상하며 저는 오늘도 알람 소리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나

글: 권영경



좌)2022년 9월13일 개화 한 보고르 식물원의 라플레시아를 연구원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우)kebun raya bogor(보고르식물원) 사이트에 올라온 라플레시아 이미지

아이가 식물 책을 보다 묻는다. “엄마 세상에서 가장 큰 꽃이 뭐 줄 알아?”  
나는 예상했다는 듯 대답한다.  
“라플레시아!”

아이가 그러했듯 나 또한 30년 전 과학 책에서 이 꽃을 만났다. 지구 반대편 밀림 어딘가에 비밀스럽게 핀다는, 마치 신화 속에서 나올 법한 어마어마하게 커다랗고 이상하게 생긴 꽃. 이제 제목이 기억도 나지 않는 어떤 동화책 속에서도 보았다. 달이 뜰 때 신비롭게 피어나 고약한 냄새를 풍기며 주인공을 괴롭히는 악당들을 기절 시키고 꽃 중앙으로 모조리 집어 삼켜 버렸던, 내 기억 속 라플레시아는 바로 그런 꽃이었다. (비슷한 내용으로 포켓 몬 카드에도 나온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

사실 이 꽃이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그로부터 한 참이 지나고의 일이다. 그래봤자 본 적이 없으니 말 그대로 ‘환상의 꽃’ 일 뿐이었지만 말이다. 그런데 웬걸! 이 근사한 꽃이 내가 있는 이곳에서 불과 50km 떨어진 곳에 피었다는 거다. 그러니 어찌 가보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 열 두 달의 식물칼럼, 그 마지막 이야기는 바로, 세상에서 가장 큰 꽃이라 불리는 <라플레시아 Rafflesia>다.

라플레시아는 반갑게도 우리에게 익숙한 보르네오와 인근 수마트라섬에 서식하는 대단히 희귀한 꽃이다. 사실 꽃이라고도 할 수 없다. 뿌리도 줄기도 없이 생의 대부분을 덩굴 식물에 기생해서 살아가는데 스스로 광합성도 할 수 없는 그저 ‘기생체’에 불과하다. 덩굴 식물에 붙어 그들의 영양분을 죄다 가져가지만 정작 숙주는 그러든지 말든지 아무 신경도 쓰지 않는다. 실제로 두 식물은 매우 가깝게 관계를 맺고 사는데 심지어 유전적인 요소조차 일부 나눠 가진다고 한다. 정확히 어느 정도의 기간을 기생하며 살



수 있는지 연구된 데이터조차 없지만 꽤 오랜 시간 붙어 있다가 짝을 띄우고 그로부터 1~2년 정도가 지나면 양배추 같이 생긴 형태로 서서히 부풀어 오른다. 그리고 꽃을 피우기 직전에 폭풍성장, 길게는 일주일 정도 세상에서 가장 크고 요상하게 생긴 모양으로 피어있다 순식간에 진다. 크기는 최대 1미터가 넘고 그 무게는 걸음마 막 뎀 아이의 무게정도(10kg)가 나간다고 하니 우리가 상상하는 꽃의 이미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다섯 개의 커다란 꽃잎은 마치 가죽처럼 두껍고 비현실적인 붉은 색 바탕에 흰 점이 있다. 중간에 커다랗게 뚫린 구멍 안에 둥근 판이 있는데 그 내부에서 일명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 이는 짧은 개화시기에 빠르게 종족번식을 하기 위한 필살기로 암모니아 냄새를 좋아하는 검정파리와 딱정벌레들을 유인하기 위함이다.

인도네시아에 자생하는 라플레시아 거의 대부분은 수마트라 섬에 있다. 그리고 서식지의 소실로 그 중 일부(*Rafflesia atjehensis*는 1918년 이래로 재발견에 대한 보고가 없다)는 멸종위기에 처해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멸종위기의 꽃임에도 끈질긴 번식력 때문인지 출산 후 여성의 강장제 또는 불임 치료에 좋다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결국 식물 도둑들의 타겟이 되기도 한다. (\*식물의 세계\_조너던 드로리)



< 말레이시아 사라왁 주에서 발견된 *Rafflesia tuan-mudae*의 성장 과정(학술지 TROPICS, 2022.3.1.) >



- (a) 식물의 줄기 위에서 꽃순 형성(2.5cm)
- (b-d) 1년에 걸쳐 천천히 성장
- (e) 개화 직전 직경 25~30cm까지 성장
- (f-g) 성숙한 꽃순은 이틀 정도 걸려 개화
- (h) 완전한 개화가 하루~이틀 지속
- (i) 개화 후 급속 부패

지난 주(2022년 9월13일) 16년 만에 보고르 식물원에서 라플레시아가 개화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듣자마자 바로 달려갔어야 했는데 개화 후 5일이 지나서야 가볼 수 있었다. 예상대로 이미 시커멓게 부패되어 있었지만 그렇더라도 상관은 없었다. 꽃이 지는 건 당연한 일이고 진 꽃에도 이야기는 있기 마련이니까. 어릴 적 책에서만 봤던 환상의 꽃(의 시늉)을 직접 본 걸로 충분했다. 더 이상 환상의 꽃이 아닌 실존의 꽃임을 확인한 순간이니 말이다. 단 3~4일 꽃을 피우기 위해 1년 이상의 시간을 보내는 모든 생명체들의 애씀을 마음 다해 응원한다. 그리고 그 응원 어딘가에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나’ 라는 믿음도 채워 넣고 싶다.



> 수마트라에서 발견된 라플레시아(출처: pinterest)



>>올해 핀 라플레시아의 개화 후 5일 후 모습(개화 당시의 실시간 영상을 TV로 틀어주고 있었다)

작년 11월, 첫 번째 식물칼럼을 시작으로 열 두 달이 흘렀다. 사랑하는 식물들을 소개할 수 있어 좋았고 우리 삶의 소소한 일상들을 나눌 수 있어 행복했다. 지방 도시에 살던 시절, 한 달에 한번 도시에 나와 한 인 마트 구석에 놓여진 <한인뉴스>를 집어 들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읽었던 기억이 난다. 그저 읽기만 하던 소식지에 내 글이 1년 동안 실린 것도 신기하지만 나와 같은 마음으로 공감과 정성스런 후기를 전해 받는 귀한 경험도 선물로 받았다. 이렇게 우리는 1년 동안 글로, 사진으로 동그랗게 이어졌다. 까맣게 변해 더 이상 화려하지도, 신기하지도 않은, 그저 보잘 것 없는 라플레시아 꽃을 10미터 떨어져 바라 보며 생각했다. 그동안의 나의 애씀도 가치 있었다고. 내가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한 언젠가 우린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그리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식물과 자연을 향한 따뜻한 시선 그 어딘가에서 당신과 나 또한 마주하게 될 거라고.

꽃들의 화려한 개화와 다르게 지는 꽃은 초라하다. 하지만 누구도 검게 부패해 형태도 알아 볼 수 없는 꽃을 향해 “어차피 질 거 뭐 하러 그리 애쓰며 피었냐” 고 감히 말할 수 없다. 주어진 상황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내 앞의 삶에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그뿐이다. 끝은 또 다른 시작을 향한 첫 번째 문. <열 두 달의 식물칼럼>은 이제 문을 닫지만 그 간 나누었던 ‘나의 식물이야기’ 가 ‘당신의 식물이야기’ 로 나아가는 첫 번째 문이 되었길 진심으로 바래본다.

**그동안 식물칼럼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1월호 글(나무가 되는 법이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다)에서 잘린 아보카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잘린 아보카도는 딱 10달 후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식물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코 죽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저 담담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묵묵히 해내기만 한다면 결국 우린 그만큼 성장해 있을 겁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었다는 공식 발표를 조심스럽게 기대해 보며, 그동안 식물 덕분에 견딜 수 있었던 시간들에 감사함을 전합니다. 모두 식물과 함께 건강하세요.**

**\* 식물원기는 인스타그램**

**@ibudo9am에서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 더 큰 성장을 위해 자른 아보카도 가지는 열 달 후, 어엿한 어린 나무로 자랐습니다





BBJA  
(Basketball Jakarta)

## 땀 뚝뚝, 정열과 열기 후끈, 젊은 에너지 화끈 ...

자카르타 GBK Arena 건물 8층 엘리베이터에 내리는 순간 후끈한 열기와 공간을 울려 퍼지는 함성들이 들려온다.

인도네시아 한인동포사회에 많은 동아리와 모임들이 있지만 가장 화끈하고 역동적인 스포츠인 농구 동아리 BBJA(Basketball Jakarta)를 소개하고자 한다.

BBJA(회장:장수환)는 고3부터 50대에 이르는 폭 넓은 연령대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들은 학생부터 주재원,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CEO등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농구를 좋아하는 열기는 하나같이 뜨겁다.

현재 자카르타, 찌까랑, 땅그랑, 보고르, 까라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최근 중부자와 등 지역별 농구를 좋아하는 동포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운영진은 현재 회장, 총무 2명 및 감사로 구성되어 있고 매주 정기경기를 위한 일정, 섭외 등을 소홀함 없이 알뜰하게 운영해 나가고 있다

과거 80년대, 90년대 한국의 농구 열풍에 힘입어 길거리농구, 1:1농구 등 다양한 형태로 많은 젊은 이들이 즐기던 운동이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한인동포사회에서 농구클럽을 만들어 운영하고 함께 운동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다.



당장 농구코트도 부족하다 하더라도 예약과 대관 비용이 부담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농구를 사랑하고 즐기는 청년들에게는 이런 열악한 환경조차 문제되는 게 아니었다.

BBJA(Basketball Jakarta)의 창단배경은 자카르타 유학생이었던 선배들이 성인이 되어 다시모





여 같이 즐겁게 농구를 해보자는 취지로 농구를 좋아하는 젊은 친구들을 모아 2011년 3월에 창단했다.

초기 설립시 5명의 인원으로 출발해 현재 동아리 단톡방에 들어와 있는 인원은 56명이며, 매주 동아리 참석하는 인원은 20~25명 정도이다. 회원은 상시 모집 중이며, 인도네시아 유일의 농구 동아리로 인도웹에 등록하여 공식적인 한인 운동 동아리로 활동 중에 있다.

정기모임은 매주 목요일 저녁 8시~10시 자카르타 GBK ARENA 8층에서 2시간동안 농구경기를 2팀씩 나누어 진행하고 있으며 경기 방식은 매주 2경기 45점 승부로 진행하고 있고 매 시즌은 10승을 채우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10승 달성시 새로운 시즌으로 진행된다.

특별한 수익이 없는 BBJA(Basketball Jakarta)는 매주 높은 대관료와 경기를 위한 소요예산을 소정의 회원들 회비로 충당하고 있다. 당장 유니폼과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운동이라 경기 시 필요한 음료 등을 충당할 예산이 아쉬운 상황이지만 회원들 개개인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정기적으로 치르고 있는 한일전을 통해 한인 들끼리의 단합과 한일 친선을 도모하고 있어 동아리활동의 의미를 더 해주고 있다. 강수한회장 이러한 활동을 통해 BBJA(Basketball Jakarta)농구 동아리가 보다 더 활성화 되어 인도네시아 한인동포들이 함께 땀 흘리며 즐겁게 농구하는 동아리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농구는 다소 격렬하고 동적인 운동이지만 타 운동과 달리 코트속에서 팀웍을 다지고 순발력과 지구력을 다지는 운동이다. 특히 한인 동포의 2세대 층이 많이 활동하고 있고 한인사회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연령층이므로 관심과 후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BBJA(Basketball Jakarta)를 잘 이끌어 성장시켜 나가고 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각 한인 단체에서의 후원 역시 필요하다고 본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아직 조명받지 못한 비인기 종목의 동아리이지만 향후 여성, 청소년, 청년, 중년층의 탄탄한 팀을 만들어 한인동포사회 에너지의 원천이 될 것으로 본다.

회원가입, 후원금 문의 : 0813 8159 7615(전상원)

## ‘인도네시아 밤하늘은 화려하다’

출처- 발리의 별

글: 장윤영 (과학교사 휴직중, 씨부부르 거주)

16년 전 신혼여행으로 찾은 발리에서 은하수가 쏟아지는 바닷가에서 씨푸드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두 번째 찾은 인도네시아 발리의 밤하늘은 여전히 별 무리로 가득했고 편안하고 친근했습니다. 혹시 이런 기분이 드는 건 우리 인간이 우주의 탄생으로 생긴 별의 일부에서 몸을 만들고 생명을 얻어 태어나서, 별과 인간이 것처럼 가까워서 일까요?

“반짝 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추네.” 어린 시절 불렀던 동요처럼 밤하늘의 별은 왜 보석처럼 반짝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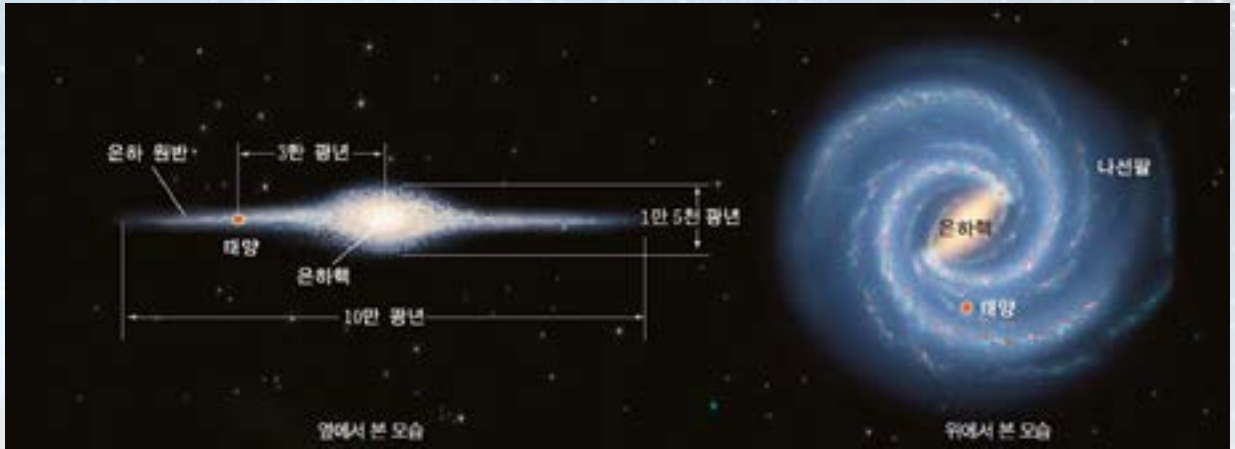
위의 사진은 인도네시아 발리의 밤하늘입니다.

위 사진을 찍은 발리는 남반구입니다. 대한민국의 서울에서 볼 수 있는 별보다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진짜 발리와 같은 남반구는 북반구에 비해 별이 훨씬 많을까요?

남반구가 북반구에 비해 도시가 적어서 빛 공해를 덜 받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남반구가 북반구에 비해 별들이 훨씬 많아서 그렇습니다. 국제천문연맹 총회에서 북반구에 속한 별자리가 36개, 남반구는 52개의 별자리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밤하늘에 별이 쏟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우리 은하에서 별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은 은하핵 즉, 은하의 중심이고, 남반구 천구의 방향인 남쪽 하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북반구 중위도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의 여름철에 남쪽 지평선 근처에서 보이는 은하핵이 남반구에서는 머리 위에 보이고, 그만큼 볼 수 있는 시간도 길습니다.

두 번째, 밤하늘에는 모두 21개의 일등성이 있고, 그 중 북반구에서는 15개 정도만 볼 수 있는데 반해, 남반구에서는 21개를 모두 볼 수 있기 때문에, 밝은 별을 볼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은 것입니다.



(주)금성출판사-우리은하

배들의 길잡이 별로 알려져 북극성이 유명세를 타고 있지만, 남쪽 하늘에서는 북극성을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을 아시나요? 또한 남반구의 길잡이 별은 무엇일까요?

남반구에서는 지구의 북극 위에 떠 있는 북극성이 보이지 않는 대신, 남극 위에 떠 있는 남극성이 보입니다. 물론 남극성은 북극성에 비해 매우 어두운 별이므로 남극성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밤하늘에 볼 수 있는 별자리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서로 다른 위치에서 지구는 천구가 회전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별들은 지평선에서 수직 방향으로 뜨고, 질 때는 그대로 수직으로 지므로, 적도에서 조금 북쪽으로 치우쳐

있는 곳이라면 약간 비스듬하게 왼쪽에서 뜨고 오른쪽으로 질 것입니다. 반대로 조금 남쪽으로 치우쳐 있는 곳이라면 비스듬하게 오른쪽에서 뜨고 왼쪽으로 질 것입니다.

최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찍은 은하들의 모습과 30년 전인 1990년 2월 ‘보이저 1호’가 지구로부터 약 60억km 떨어진 우주에서 촬영한 지구의 모습입니다. 두 극단적(?)인 사진을 보시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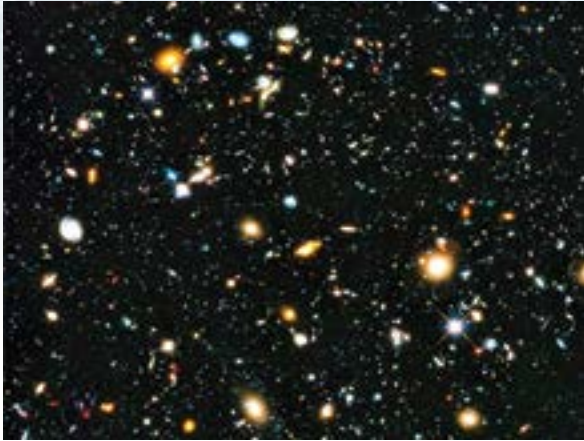
이 사진을 맨 처음 보았을 때 허무함과 고귀함을 넘나들며 혼란스러웠습니다. 먼지 위에서 아옹다옹하며 살고 있는 우리 인류가 우주 속에서 참으로 작고 외롭고, 보잘 것 없게 느껴지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요!



북극성 중심의 별들의 이동-반시계 방향



남극성 중심의 별들의 이동-시계 방향



최근 제임스웹 우주망원경이 찍은 은하들의 모습



우주에서 촬영한 지구의 모습  
(1990년 2월 보이저1호 촬영)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이 두 사진을 볼 수 있는 지구 역사상 처음 있는 대단히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무수히 많은 별 먼지 속 ‘행복한 별 먼지’ 인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도 인류는 별 먼지 속 ‘생각하는 먼지’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소중히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지 않을까요?

인류에게 다가올 우리 별 먼지의 운명(?)은 우리만이 바꿀 수 있고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출처>

1. 별혜는 밤 천문우주 실험실(김지현,김동훈 지음)
2. 천문학 콘서트(이광식 지음)
3. 30년 전 우주에서 포착된 ‘창백한 푸른 점’ (동아사이언스)
4. 우리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GMC폴강연\_이명현)
5. 허블 대신 138억살 은하 답을 ‘제임스웹 우주망원경’ 실험 완료(IT조선, 차경주기자)
6. ㈜금성출판사
7. 발리의 별(구글)
8. 폴라리스는 북극성(FORVM)



# 한-인니 작가교류



**한** 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 지부(회장:김준규)는 26일 한국 대구·경북 작가회의 회원들을 초청하여 인니 문협작가들과의 교류행사를 가졌다. 대경작가회의 회원들은 25일밤 비행기로 자카르타에 도착하여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작가들과 9월 26일부터 29일 까지 나흘간의 일정으로 작가교류를 이어나갔다,

26일 인니문협은 문학에 관심 있는 여러 내 외빈을 초청하여 한인문화회관 2층 도서관에서 <이국의 땅에 뿌리내린 우리민족의 자취와 한의 정서>라는 주제로 문학 강연과 각종 행사를 열었다.

본격적인 행사를 시작함에 앞서 인도네시아지부 김준규 회장과 이위발 대경작가회의 회장의 개회사 및 내빈소개가 이어졌고 한국작가들의 시 낭송은 행사에 참석한 모든 이들의 문학적 감성을 깨워 주는 기회가 되었다.

본 강연에서는 주제강연1과 주제강연2로 나뉘어 장옥관 시인의 주제강연 <직관적 글쓰기>에 관한 심도 있는 글쓰기 강연과 김준규회장(문협인니지부)의 “문학과 발명”이라는 독특한 주제의



강연을 통해 다시 한번 글쓰기에 도전하고자 하는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좋은 기회였다.

행사 후 작가협회는 한인 문예총에 도서를 기부하였으며 문협인니지부와 MOU를 맺고 소설 암바라와의 유적지 답사를 위해 27일 중부 자바로 장소를 이동했다. 암바라와에서 우리 민족의 애환과 순국정신을 추모하고 돌아가는 마지막 일정을 끝으로 모든 행사는 막을 내렸다.

(제공: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

마루와 호두

눈 세모나게 뜨란 말이야!

임소연 집사

고양이를 입양할 때는 나이를 고려하는 것이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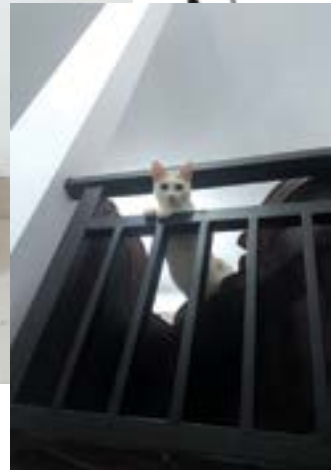
새끼 고양이는 배워야 할 것, 챙겨줘야 할 것 또한 많다. 전선이나 끈의 형태를 갖춘 그 모든 것을 집에서 치워야 하고, 화분을 포함한 유리나 도자기 소재의 장식품 또한 위험하다. 변기는 항상 내려져 있어야 하고 독성이 있는 화초들 또한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면역체계도 자리를 잡아서 잔병치레도 덜 한다는 이점이 있어 고양이를 처음 겪는 랜선집사의 경우 성묘 입양을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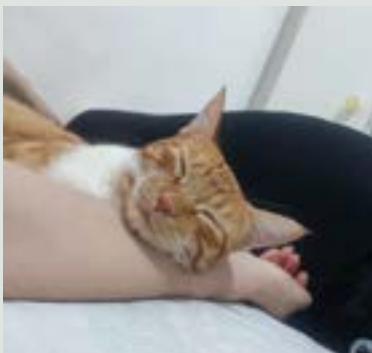
#스텝 찍어 주세요



#엄마! 언제 끝나?



#다들 나간겨?



#팔베개해야 잠이 온다고요



#나두 데려가야 할걸~~



#배에 자국나것다

## 국악과 공예의 만남 <K-Maestro>



<소리 이선희, 교수 한수산>



<가야금 김보경, 장구 홍산진>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과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원장 김용운)은 2022 한국문화의 달 행사의 일환으로 국립국악원(원장 김영운)과 협력하여 국악과 공예의 만남 'K-마에스트로' 전시회 개막식을 9월 23일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에서 개최했다.

9월 23일부터 10월 26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K-마에스트로 전시회는 무형의 예술인 전통음악과 유형의 예술인 공예를 융합한 행사로서, 판소리와 산조를 소재로 국악과 공예가 어우러지는 공간과 공연을 함께 선보이는 행사다.

2021년 한국에서 첫선을 보인 후, 첫 번째 해외 행사로 인도네시아를 선택한 이번 전시회는 개막식에서 판소리와 산조 두 개의 공연을 관객들에게 선보여 큰 호평을 받았다.

판소리를 주제로 한 공간 '화연(花宴)'은 해학과 풍자로 서민들의 삶을 그려낸 판소리와 매듭 공예를 접목시켰다. 소리꾼의 구성진 이야기 속의 다양한 인생살이가 각기 다른 형태로 엮어지고 풀어지는 수천 개의 꽃 매듭으로 표현하고, 삶의 희로애락을 굽이굽이 오르는 언덕으로 연출했다.

연주자 기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독주 음악 양식인 산조의 공간은 '파동(波動)'의 콘셉트를 붙였다. '허튼가락'이라는 산조의 뜻 그대로 탈격의 미, 불균형 속 균형, 비대칭과 비정형의 아름다움, 질서와 무질서의 경계와 조화를 섬유와 금속 공예에 담았다.

이번 행사는 세계적으로 높아진 한류의 위상에 맞춰 한국의 유형 및 무형 전통예술의 가치와 멋을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소개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공: 한국문화원)

# 기관(단체, 조직)명과 관직명 어떻게 사용하나 (1)

민선희 (본지 '문법왕' 기고)

편집자 주) 통일되지 않은 인도네시아 고유명사, 기관명 등의 한국어 표현의 혼선을 방지하고 사전으로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인도네시아 명칭을 국어, 영어, 인니어를 총체적으로 연관지어 그 명사의 뜻과 역할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KBBI Kamus Besar Bahasa Indonesia 사전 정의	사용 예시
lembaga	<p>영어) institution, institute</p> <p>[정의] badan(organisasi) yang tujuannya melakukan suatu penyelidikan keilmuan atau melakukan suatu usaha akademis, ilmiah, atau penelitian, atau melakukan suatu usaha akademis, ilmiah, atau penelitian untuk memperoleh pengetahuan baru</p> <p>[설명] ⇨ 국가기관, 연구소, 시민단체, 학원 등에 사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embaga negara 국가기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모든 기관을 칭함)</li> <li>◆ lembaga penelitian, ~ riset 연구기관</li> <li>◆ lembaga survei 조사(설문) 기관</li> <li>◆ lembaga pemerintah 정부기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IPI [리삐] Lembaga Ilmu Pengetahuan Indonesia 인도네시아 과학원 Indonesian Institute of Sciences (※lembaga pemerintah non-kementerian)</li> <li>◆ LSM (Lembaga Swadaya Masyarakat) 시민단체</li> <li>◆ lembaga kursus bahasa inggris 영어학원 (일상에서는 학원을 bimbel (bimbingan belajar) 라고 함)</li> </ul>
badan	<p>영어) agency (administration, authority)</p> <p>[정의] sekumpulan orang yang merupakan kesatuan untuk mengerjakan sesuatu pekerjaan yang memerlukan tenaga, pikiran, dan keahlian</p> <p>[설명] ⇨ 기구, 위원회, 연구기관, 정부기관(원, 청) 등으로 사용</p> <p>*특히, '청'으로 할 것인지 '원'으로 할 것인지 정할 때에는 '기관이 하는 일'과 상하위 '관련 조직'을 살펴 정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adan 법인(badan usaha) PPh(Pajak Penghasilan) Badan 법인소득세 BUMN(Badan Usaha Milik Negara) 국영기업</li> <li>◆ BIN [빈] 정보부 (우리나라 국정원과 유사) Badan Intelijen Negara</li> <li>◆ BNPB [베엔삐베] 방재청 Badan Nasional Penanggulangan Bencana</li> <li>◆ Badan Legislasi, DPR 하원(의회) 법제처</li> <li>◆ Balitbang [발릿방] 연구개발원 (R&amp;D센터) Badan Penelitian dan Pengembangan</li> <li>◆ Bappenas [바쁘나스] 국가개발기획청 Kementerian PPN(Perencanaan Pembangunan Nasional) 국가개발기획부 (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장관이 청장을 겸직)</li> </ul>

		<p>Bappenas의 영어 명칭 :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Agenc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KPM[베까삐엠] 투자조정청(약칭:투자청) Badan Koordinasi Penanaman Modal</li> <li>◆ BPOM[베뽀엠] 식약청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직역: 의약품식품감독기관 (영어: NADFC, National Agency for Drug and Food Control)</li> <li>◆ Badan Otorita Ibu Kota Nusantara (IKN) 신수도관리기관 (※기관장(장관급): Chairman/ Head of the Nusantara Capital Authority)</li> </ul>
pusat	영어) cen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usat penelitian, pusat riset 연구소, 연구원, 연구센터</li> <li>◆ pusdiklat [뿌스딕랏] 연수원 Pusat Pendidikan dan Pelatihan</li> <li>◆ puskesmas [뿌스끄스마스] 보건소 Pusat Kesehatan Masyarakat (직역: 공중보건센터/공중보건소)</li> </ul>
institut	영어) institute 전문 단과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nstitut Teknologi Bandung (ITB) 반등공과대학 [이-떼-베]</li> <li>◆ Institut Seni Indonesia (ISI) [이시] 인도네시아예술대학</li> <li>※ Goethe Institut(괴테인스티튜트)독일문화원</li> </ul>
organisasi	영어) organiz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rganisasi internasional 국제기구, 국제단체</li> <li>◆ ormas [오르마스] 시민단체 organisasi kemasyarakatan 이슬람 단체 : ormas Islam</li> </ul>
dewan	<p>영어) board [정의] majelis* atau badan yang terdiri atas beberapa orang anggota yang pekerjaannya memberi nasihat, memutuskan suatu hal, dan sebagainya dengan jalan berunding 조언을 하거나, 협의를 통해 무언가를 결정하는 등의 일을 하는 회원 여럿으로 구성된 위원회 *참고)우리 국회(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는 Majelis Nasional Korea / Republik Korea라고 번역한다. 구두로 대화할 경우 약식으로 parlemen Korea 라고 하기도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PR:Dewan Perwakilan Rakyat 국민대표위원회 (하원)</li> <li>◆ DPD : Dewan Perwakilan Daerah 지역대표위원회 (상원)</li> <li>◆ Wantimpres (Dewan Pertimbangan Presiden)대통령자문위 ※한국 감사원(BAI,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의 경우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하여 영어와 병기할 경우 이렇게 한다 : Dewan Audit dan Inspeksi Korea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BAI)</li> </ul>

우리나라 행안부가 제정한(2015)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제5조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에  
는 아래와 같이 나와있다.

1. 부(部) 처(處) : Ministry
2. 청(廳) : Administration, Agency, Service, Office
3. 원(院) : Board, Agency
4. 실(室) : Office
5. 위원회 : Commission

위 조항을 바탕으로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다.

▷ 행정안전부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 법제처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 국세청(NTS) National Tax **Service**

※인니 카운터파트 : DJP (Ditjen Pajak ‘조세총국’, 즉, 인도네시아 ‘국세청’)

▷ 행복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NAACC) National **Agency** for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 한국 기상청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구물리청(BMKG, **Badan** Meteorologi, Klimatologi, dan Geofisika)

인도네시아어와 한국어를 1:1로 사전적으로 대입해 외우기 보다는, 항상 몇 가지 예시를 학습하면서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다. ‘badan’ 을 단순히 ‘청’ 으로만 외워두고 badan만 나오면 ‘청’ 으로 일괄적으로 바꿀 수 없는 일이다. 의회(DPR) 산하 조직으로서의 badan은 ‘청’ 으로 쓸 수 없다. 인도네시아 기관명을 한국어로 어떻게 바꿔 써야 할지 헷갈릴 때는 구글에 영어 검색을 함께 해 보는 것이 좋다. 특히, 한국 검색 포털을 이용해 기관 간 협력사업을 찾아보면, 상대기관을 어떤 명칭으로 쓰고 있는지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 있다. 한국 뉴스에서도 번역이 늘 옳은 것은 아니다. 소소한 오류들은 지식이 쌓이면 스스로 걸러낼 수 있다. 구글 검색으로도 ‘나와 있는 정답’ 을 고를 수 없는 경우, 해당 인도네시아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찾아 읽어 보아야 한다. 그런 방법으로 한국에서 그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기관을 떠올려 한국어로 명칭을 정할 수 있다.

11월호에서는 인도네시아 관직명(직책)을 어떻게 한국어로 이해하면 좋을지 살펴보겠다.



## Amalia Candrayani 선생님께 배우는 실용인니어

- 일시: 2022년 10월 매주 화요일 (4회)  
(10월 4일, 11일, 18일, 25일 )
- 11:00-12:30
- 경력
  - UI 인도네시아어 및 인도네시아 문학 학사
  - UI 교육심리학 석사
  - UI BIPA (1995-2008)
  - UAJ 경제학부(1997-2020)
  - 한국기업 임원 다수 개인지도(1992-)
- 참가비: Rp 600.000 (4회)
- 선착순: 10명
- 장소: 한인니문화연구원
- 신청: 밴드댓글 <https://band.us/@ikcs>
- ☎ SMS/KT: 081519010570  
(KT id: lilac4004)
- 강좌시 한국인 코드 지원함—

< 가 ' ' >

## 글쓰기 목마름 해소할 목요일!

한인니문화연구원이 교민들을 위한 문화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바쁜 일상 속,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며 글쓰기에 대한 목마름까지 해결하세요.

- 운영기간: 2022년 8~10월  
매주 목요일 9~12시. (3 시간)

### ● 운영방법

- 바쁜 일상 속,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세요.
- '나를 위한 글쓰기' 하고 싶으신 분 환영해요. 같이 써요.
- 막막한 내 아이의 글쓰기가 고민이신 분 상담해 드려요.
- 아이가 쓴 글 가져오시면 무료로 첨삭해 드려요. (국어, 영어 모두 가능)
- 선생님께서 맡겨도 부족했던 글쓰기 가려움증, 시원하게 해결하세요.

### ● 지도작가:

이영미 (아동문학가)

- 부산영어방송 · 재외동포재단 해외통신원
- 『맹꽁이의 집을 찾아주세요』, 『인도네시아 한인 100년사』 공저, 『마음대로 풍선껌』 출간 예정
- 샘터상, 제주기독교신춘문예, 생태동화공모전, 아동인권동화상 수상
- 국제학교 초·중·고생 영어 및 한국어 글쓰기 지도 10년 이상

● 오시는 길: JI. Gatot Subroto Kav. 58 1층 한인니문화연구원

☎ 연락처: 081-111-7230

● Band: <https://band.us/@ikcs>

## 분쟁 해결 방법(2)

(전호에서 계속)

### 2.7. 확실성의 원칙

계약 내용이 법적으로 확실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계약 내용이 애매모호한 계약은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으며 분쟁 발생 시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다.

### 2.8. 도덕의 원칙

계약 내용이 부도덕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도덕의 기준은 계약 체결 당시 계약 체결지의 도덕이 기준이 된다. “예”를 들면 계약결혼은 서양인의 도덕 기준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으나 인도네시아인의 도덕기준으로는 용납이 되지 않으므로 계약결혼 계약서를 체결한 상대방이 돈만 받고 계약결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인도네시아 법원에 청구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많지 않다.

### 2.9. 적절의 원칙

적절의 원칙은 민법 제1339조에 “계약은 계약서에 약정된 내용뿐만 아니라 그 내용의 성질 상 그 내용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법률, 관행, 대등 혹은 공정의 기준에 비추어 적절한 내용이어야 한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된 내용일지라도 그 내용이 적절하지 못하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이다.

### 2.10. 관행의 원칙

당사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 내용 중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관행은 이미 계약서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원칙이다.

## 3. 분쟁 해결 방법

분쟁이 발생 시 인도네시아의 현재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분쟁 해결 방법은 i). 분쟁 당사

자 간 직접 협상으로 해결하는 방법, ii). 대리인을 선임해서 대리인 협상해서 해결하는 방법, iii).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 iv). 중재원에 의뢰해서 해결하는 방법, v). 파산선고로 해결하려는 방법, vi). 형사고발로 해결하려는 방법 등이 있다.

## 4. 협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협상을 통한 해결이다. 그러나 상황과 상대를 피차에 잘 아는 당사자 간에 직접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 같으나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방법이다. 분쟁의 발생 이유를 자기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보며, 계약 위반이나 불법행위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분쟁 발생 귀책사유를 상대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또 손해 배상 범위에 대한 생각의 차이 때문에 직접 협상으로 통상 분쟁 직접해결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당사자 간 협상으로 분쟁 해결에 합의하면 합의서 작성이 필수이다. 민법에 분쟁 해결 합의서에는 분쟁 크로놀로지(시간순 배열)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분쟁 크로놀로지와 합의 사항을 분명하게 기재하고, 합의서 불이행 시 페널티와 준거법 및 관할권 기재가 필요하다. 당사자 간 직접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대리인을 세워서 대리인들이 만나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대리인은 대리인 간 협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것까지 감안해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변호사 간 분쟁에 대하여 법리적인 검토를 해보면 어느 쪽이 계약을 위반했거나, 불법행위를 했는지, 분쟁의 귀책사유가 어느 쪽에 있는지, 손해 배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법리적으로 밝혀질 것이다. 대리인 간 분쟁을 검토하고 협상 후 대리인의 분쟁 해결 의견을 분쟁 당사자가 수용하면 분쟁이 협상으로 원만



하게 종결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협상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면 당사자가 종전의 주장에서 조금 양보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 5. 민사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 5.1. 법정대리인 선임

민사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면 확정판결문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현지 실정이다. 전략과 인내심이 필요하다. 민사소송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변호사와 상대측의 배상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변호사들은 한국의 제도에 익숙한 변호사의 자질이 평균화되어 있으나 인도네시아의 변호사들은 그렇지 못하고 천차만별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로펌에서 2년 간 실습을 마치면 변호사 자격증을 부여받고 실무에 배치되나, 법률문제로 찾아온 손님에게 종합적인 법률 상담을 해주려면 변호사 자격증 취득 후 최소 5년 정도의 실무 경력은 있어야 하며, 법률문제를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려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변호사라야 하는데, 법률상담을 해보면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승소할 수 있다”는 의견을 쉽게 자연스럽게 표시한다. 사건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보다는 변호사 자신의 입장에서 보고 수임하기 위해서 쉽다고 말하는 변호사들이 많다는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 사건위임계약서를 체결하고, 소송 진행 상황을 제 때에 정확하게 알려주고, 의뢰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소송 전망을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변호사가 많지 않은 현지 실정 때문에 의뢰인과 변호인 간에 신뢰를 쌓는 것이 쉽지 않으며, 특히, 외국인 의뢰인들이 많이 답답해하는 현지 실정이다. 문제를 법리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법리적으로 유리한 사항과 불리한 사항도 설명해주고, 분쟁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방법도

설명해주고, 의뢰인이 현실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이다. 수임료는 변호사협회의 가이드라인이 없는 자유시장이어서 미국처럼 로펌 간 차이가 많다.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로펌일수록 고가이다. 민사소송은 수임료 이외에 승소 시 성공보수가 있다.

### 5.2. 상대의 배상 능력 조사

승소 후 패소한 측이 승소한 측에게 확정판결문대로 손해를 배상해주면 다행이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고, 사전에 가압류해 놓은 패소한 측의 재산을 매각하여 손해를 변제받는 강제 집행 방법을 쓰거나, 패소한 측의 재산을 찾아내서, 법원에 압류허가를 받아, 강제 집행하는 방법으로 손해를 변제받고 있다. 따라서 소송 청구 전에 상대측의 재산을 조사하여, 법원의 가압류 허가를 받아 가압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승소를 했더라도 패소한 측이 배상 능력이 없으면 낭패를 맞을 수 있다. 소송 전에 상대측의 배상 능력 조사는 필수이다. 상대측이 사업 활동을 하고 있으면 배상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도 무리가 아니라 할 수 있다.

### 5.3. 민사소송 소요 기간

대법원의 소송처리 기간 지침서에, 지방법원은 지방법원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리고, 고등법원은 고등법원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리도록 되어 있으며, 대법원에 대해서는 처리 시한 지침이 없으나 통상 6개월-9개월 정도 걸리고 있다. 법원 간 소송 이첩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현지 실정이다. 지방법원에서는 본소만 심리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6개월 이내에 판결이 내려지나 반소가 있는 경우에는 통상 시간이 더 소요되기도 한다. 재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약 6개월 정도 소요된다.

(다음 호에 계속)



# 긴급전화번호

경찰	POLICE (Polisi)	112
범죄 및 도난신고		110
소방서 (화재신고)	FIRE BRIGADE (Dinas kebakaran)	113
응급차	AMBULANCE (Ambulan)	118 119
민간구급차 서비스	PRIVATE AMBULANCE SERVICES	(021)7506001 =International SOS (24시간대기)

## ■ 전화번호 안내

시내.....108  
Directory Service(City)

시외.....105,100  
Directory Service(Suburbs)

국제전화.....001,008

## ■ 교통기관

수카르노 하타 공항 안내.....021)5505307/8/9  
Airport Information 550 5179

택시예약(블루버드클럽).....021)7917 1234  
(24시간 접수)

고속도로 정보.....801  
Toll Road

교통사고.....118, 021)527 5090  
Traffic Accidents

열차시간안내.....121  
Station Gambir  
Station Kota.....021)692 8515

## ■ 재인도네시아 한국인관련 주요기관

한국대사관.....021)2967 2555

영사과.....021)2967 2580

재인도네시아한인회.....021)521 2515

한인회 24시간 비상연락.....0812 1960 308

## ■ 항공사 안내

대한항공(시내).....021)521 2180  
(터미널3).....021)8082 2198/9  
가루다(Call Center).....021)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시내).....021)5031 1030  
(공항).....021)8082 2291~2

## ■ 우편

중앙자카르타 우체국.....021)384 4188

## ■ 각종 고장 문의

전기고장 문의.....123  
전화고장 문의.....147  
수도고장 문의.....021)5798 6555

## [한인외 외비 납부 안내]

# 개인회비는 매년 Rp. 30만 입니다.

한인회비 납부를 통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 마련에  
한인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동포여러분!



인도네시아 한인 행려병자의 병원치료비와 불법 체류자의 한국 귀국에 필요한 항공편을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 및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사랑의 전화’를 통한 후원 등 여러분의 개인회비는 인도네시아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한인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 박재한 배상

<보내실 곳>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BANK KEB HANA INDONESIA
계좌번호 (루피아)	Rp. A/C NO: 200-913-783689	Rp. A/C NO: 220-200-5949
예금주	YAYASAN WARGA KOREA	YAYASAN WARGA KOREA

문의처: 한인회 사무국 021 521-2515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7	2580
주발리분관	361)445	5037
주아세안대한국대표부	2967	257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1900, 2992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	303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292	130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954	03357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인회 비상연락전화	0812 1960	30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킹(KOWIN)	081511708882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여명	9955	5859

●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JKS)	844	4958-61
꿈나무학교	5579	4407
간디국제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학교 (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학교 (SIS)	7591	4414
(골라빠가딩)	460	8888
영국국제학교 (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학교 (JIS)	750	3640
북국제학교 (NJS)	453	1001
호주국제학교 (AIS)	782	1141
일본학교 (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학교(DSJ)	537	8080
TAIPEI 국제학교(JITS)	452	3273
SPH (땅그랑)	546	0234
(짜까랑)	897	2786
RICS	7590	3342
헤리티지인터네셔널 (HIS)	0812 971	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 EMBASSY SCHOOL	390	4137
ACG 국제학교	780	5636
ICSCE	780	7313
익투스크리스천국제학교	7590	8820/50
Sinarmas World Academy(SWA)		
시나르마스 BSD	0812 8689	2897

시나르마스 Thamrin 2993 7234

● **유치원**

Hansol Kids	765	6588
Brain School	7179	4787
Bambino (Cipete)	227664497/7203356	
(Patra Kuningan)	8378	3783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스쿨(자카르타)	750	0739
(골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7227
꿈나무유치원	5576	7509

● **골프장**

BOGOR RAYA	0251)827	1888
CENGKARENG	5591	1111
CILANGKAP	8459	5687
CIKAMPEK	0264)317	007
DAMAI INDAH [BSD]	537	0290
EMERALDA	875	9019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825	7500
HALIM 1	800	5762
HALIM 2	809	0729
IMPERIAL	546	0120
JABABEKA	893	6148
JAGORAWI	875	3810
KAPUK	588	2388
KARAWANG	0267)405	888
KEDATON	5930	0000
KEMAYORAN	654	1156
KRAKATAU	0254)372	030
LIDO	0251)822	1008
MATOA	787	0864
MODERN	552	9228
PALM HILL	8795	4307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5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827	2111
RANCAMAYA	0251)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OVER SIDE	867	1533
ROYAL JAKARTA	8088	4488
SAWANGAN BARU	740	2194
SEDANA	0267)644	730
SENTUL HIGHLAND	8796	0266
TAKARA	599	1227

●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	-----	------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 **골프샵**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레네세계골프	739	8312
한양(골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플레이골프	344	2540
MFS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 **은행**

IBK인도네시아은행 본점	5790	8888
수출입은행	525	7261
KEB 하나은행 본점	522	0223
우리소다라은행 본점	2995	1915
신한은행	2975	1500

● **가구**

조지언 퍼니처	2276	6887
아이니갤러리	581	4690
울매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로만 인테리어	0811	847 699
그린 가구	0813	1000 8778

● **건강식품/건강원**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한국건강원	5579	6411
솔진생코리아	7278	8287
이름황성주생식	5296	1522

●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 **건설 / 설비 전기**

DASOM Indonesia	2940	3042/5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PT. SSA(종합건설)	0812	1956 0188



#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나무플라워 0812 1314 2681

● 기타

에셀바틱 0813 1038 4812  
자카르타 명상센터 0821 7777 9972  
땅그랑 명상센터 0821 7777 9973  
바람소주 0858 8831 1218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트리비움발리마사지스파 0813 9861 1388

●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2 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1 193 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미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샤르헤어 7279 6998

Salon & Beauty Shop 7278 6969

●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법무법인 인도양 527 3077

●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한국부동산 0811 876 204  
대박부동산 08111 555 615

● 방송사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 병원

관준한의원 739 7854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신농씨한방병원 7278 0563  
365OPEN CLINIC 위자야 점 2793 2625  
골라빠가딩점 2245 8015  
아리따움 치과 /피부과 725 345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Indo Dental (치과외사 정혜정) 0815 1004 2004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Matahari Klinik 722 6391  
Dokter Korea 0815 8539 7777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 본점 722 2214  
무궁화 땅그랑점 558 2214  
무궁화 찌까랑점 0851 0075 2214  
무궁화 다르마왕사점 723 3214  
무궁화 뽕독인다점 7590 5488  
무궁화 골라빠가딩점 453 3624  
무궁화 찌부부르점 2217 7281  
무궁화 수라바야점 031-563 4645  
무궁화 스마랑점 024-7640 4783  
무궁화 반동점 022-8200 1674  
무궁화 꼬따 바루점 022-8680 2262  
무궁화 족자점 0274-288 5156  
무궁화 발리점 0361-475 2734  
무궁화 보고르점 0251-831 5175  
무궁화 츠빠라점 0813 2158 5673  
무궁화 뽕루잇점 0811 841 4188  
무궁화 마카사르점 0811 46 0678  
무궁화 빈다로점 0821 2292 9591  
무궁화 바뽕점 0812 6664 8989  
무궁화 BSD점 0811 1565 988  
무궁화 빈딴점 0812 6664 8989  
무궁화 PIK점 0813 8839 6190  
무궁화 반자르마신점 0811 5595 777  
무궁화 가딩세르풍점 0813 1630 5312  
무궁화 빨렘방점 0813 9067 0995  
무궁화 뽕띠아낙점 0812 5623 112  
무궁화 꾸닝안점 0821 1448 0988  
무궁화 고훈주룩점 0813 8610 8800  
무궁화 아마르따뿌라점 0815 9977 689  
무궁화 롯데에비뉴: 0811 870 386  
무궁화 쫄빠까마스점 0818 839 846  
무궁화 뽕독뽕낭점 0811 8822 891  
무궁화 솔로점 0858 0375 3035  
무궁화 메단점 0813 7634 2842  
무궁화 발릭바판 0821 4861 0000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K-마트 2277 5526  
KOREA MART(수라바야) 031 734 3989

**woori**  
**우리컨설팅**  
정직·성실·전문성의 우리컨설팅이 함께 합니다  
투자/법인/연혁가/비자/재출/부동산/리서치  
Tel : 021-7918-4239 | HP : 0811-148-3700  
Email : master@woori-consulting.com  
Website : www.woori-consulting.com

서로 도와 함께 가는 우리

www.doowang.net  
**DOOWANG**과 함께 가면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려한 나의 겨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문 한문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기다리고 한국과 베트남 다려 찾아뵙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바르게-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Graha Surveyor Indonesia, 19<sup>th</sup> Floor Suite 1901  
J.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Tel. (62-21) 2941-0790 (hunting) | Fax. (62-21) 2941-0775  
Mobile: 0811-453607 | www.doowang.net  
E-mail: lee@doowang.co.id | leewoowang@gmail.com

**항공권·호텔·관광·비자**

로템과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R RODEM TOUR**

Tel:(021) 4587 8833 Fax:(021) 4587 8834  
HP: 0812 8092 5484  
Email: rodemtours@naver.com

● 식당

하나	0254-393 2146
가나레스토랑	0811 918 132
가야성	725 7373
가호(SCBD 점)	5289 7044
강남	0812 2323 5119
강남스타일	2952 8443
홍대포차	726 4999
김삿갓	722 2230
대가	8459 2871
대감집	723 3315
대화	720 6091
락	5793 9211
마포	7279 2479
맛집칼국수	0821 1096 3483
명가면옥	0254-849 3571
면의전설	521 0230
명가면옥	2751 0800
미가	0818 85 8026
미스터 박	5140 1142
버까시 서울	8895 7604
베이징	0254-837 0242
보신명가	789 0220
본가	739 6229
삼원가든	2988 9505
설악추어탕1(세노파티점)	722 1852
설악추어탕2(골라빠가딩점)	2937 5435
소래포구	8990 5051
청기와	726 1924
청담가든	0815 7342 5802
청해수산	527 8721
토박	725 1135
한강가든	0813 1988 5751
한양가든	2751 7370
한옥	0254-385 588
감담	4584 5837
다미	4585 0040
대장금	0816 885 956
마포갈매기	0812 9313 9503
명가면옥	8990 4552
미스터 사시미	4585 3484
미추홀	6583 1472
산정(찌까랑)	2909 3454
(땅그랑)	547 3172
서울	4585 4454
설악추어탕	2937 5435
감미옥	5579 4612
강나루	5576 8222
강촌	5579 3681
꼬꼬따리아	0254 394 255
대가야	547 5511
명가면옥	552 2745
산들	5579 5821
상하이	5573 5550

산해진미	5577 8182
서울일식	546 0840
아리수	0254-781 0059
알리사	0254-60 1430
오리랑장어탕	5577 6457
우리들	552 4047
조선민물장어	5573 3308
종가레스토랑	551 3273
청기와	0858 1377 3388
수하루	5577 8585
태능갈비	7055 0888
테라스 가든	8493 9321
한마당	5577 6770
산정 까라와치	547 3172
산정 찌까랑	2909 3000
산정 까북	3005 1650
유가네	2221 3392
본가 (족자카르타)	0274 2831440
치맥 (족자카르타)	0274 2831869

● 신문

한국신문 종합대리점	0812 1004999
한인포스트	4586 9199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신문	5290 0117

● 안경원

옵틱무티아라안경원	5793 7969
-----------	-----------

● 여행사

나래여행	5296 0749
하나족자트래블	0274 887 488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유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2950 8903
Inko Batam(바탐)	0778 462 500
사랑투어	2912 5099

●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 의료기

PT. CGM INDONESIA 0811 155 652

• 인터넷

HANASTAR INTERNET 2270 8282  
S-Net 7080 7886

• 인테리어

AEGIS BLIND 2943 3876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0811 847 699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그린 인테리어 0813 1000 8778  
INNOMATE 7919 2006  
올댓테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INPLAN DESIGN 0857 1198 6516

•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021 526 5512  
페나스콧 로지스틱스 2902 3838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84 155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증권/보험

삼성화재 021 8062 2000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5959  
키움증권 5010 5800  
KDB 대우증권 515 1140  
KB손해보험 3199 0247  
한화생명 727 88150

• 컨설팅

오롬컨설팅 4585 4910/11  
럭키비자 0813 1133 2122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두왕컨설팅 520 7153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비엔시 컨설팅 2278 0470/4013  
한국컨설팅 0811 876 204

• 인재채용

OSSelnajaya(세르나자야) 572 7214

• 컴퓨터, IT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0811 888 9609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 하숙

경복궁 하숙(리뽀찌까랑) 081314157581  
가딩 홈스테이 9661 5877  
갈릴리 게스트하우스 0858 1341 3222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0813 1514 9978  
나인비즈니스 하숙 9940 5005  
더블루 레지던스(찌까랑) 0811 1979 170  
블루하우스 게스트하우스 081280513637  
KAKAOTALK ID : theblueid  
동지 하숙 3608 9316  
리뽀찌까랑 하숙 0812 1066 7757  
레저 게스트하우스 0811 143 437  
모나리자 8990 9570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 8059 1625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0821 1336 1111  
썬터 하숙 726 8775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0815 1780 3680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위자야 게스트하우스 0815 1024 8888  
한밭 830 9990  
한울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 학원/교육업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1 9103 108  
에세드라아트스쿨(리뽀까라와찌) 546 4531  
종로학원 7883 5202

토마토미술 723 3699  
0817 9876 950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터미널3) 8082 219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시내) 5031 1030  
(공항지점) 8082 2291~2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몰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쿤플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골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5 1158  
환전 712 8556

반동 (지역번호 022)

반동 아름다운교회 201 3184  
0813 2233 0119  
반동 반석교회 201 5022  
한국인교회 201 4052

•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아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동렌트카 0858-1111-4000

#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소고기, 돼지고기와 함께  
신선한 **참치**(볼때기살, 뱃살,  
배꼽살)를 출시합니다!



**고기고기**  
밴드(김군 고기고기),  
카톡baguskim5050,  
087780948178로  
주문하세요

[dailyindonesia.co.kr](http://dailyindonesia.co.kr)



## • 종교 단체

### <기독교>

교민교회	5576 7508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연합교회	7279 5625
에사랑침례교회	4176 5140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51 5525
열방교회	552 5164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야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0 7324
주님의교회	831 3843
중앙감리교회	533 2749
찌까랑임마누엘교회	8990 3133
참빛교회	718 3535
한마음교회	739 5035

반동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동컴닥터	0821-2222-6000

\*발리지역의 문외는 당분간 발리한인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동문회

### •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현)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북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례시오중고	548 5112
광주 서중일고(이용하)	527 0150
광주 금호고	0815 1903 5802
광주 진흥고(박호섭)	0812 6666 3338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륜고(김우기)	0812 8763 9907

### <천주교>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대전고(윤내선)	426 2954
덕수고(성기운)	0816 114 7364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동래고(박형남)	0819 555 3456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목포중고(김웅진)	568 0517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부산기고(채윤규)	026 751 2483
부산 동고(이동훈)	0811 190 7967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부산 중앙고(송명석)	0811 834 412
부산고(조명국)	0811 1046255부
산 외고(선진세)	0813 8536 8434
서울고(이상열)	0811 916 953
서울 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성남고(성기채)	0815 1070 2424
성동고(구본욱)	025 161 1466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수원 유신고(안성욱)	0813 1626 7777
순천 중고(김정욱)	0815 1932 9650
송문고(김영언)	0816 937 269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양정고(이종환)	0815 1033 1001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유한공고(이선용)	0812 071 210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정석항공고(백승엽)	0811 903 144
중동고(김일태)	0812 1922 1462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진주 대아고(김영진)	5522 0041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한성고(박창화)	0816 912 302
해광고(서동희)	0813 9839 9286
휘문고(맹중호)	0818 973 986

• 대학교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용)	0811 910 6707
경기대(박호섭)	0812 6666 3338
경북대(이준혁)	0811 880 401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계명대(추교일)	0813 1824 5952
고려대(안재완)	0812 819 82252
공군 장교단(정태훈)	0811 9891 403
부경대(서동운)	0813 8568 1122
동국대(염정운)	0817 681 8599
동아대(서종균)	0811 850 212
목포해양대(이종재)	08111 975 205
부산대(유제상)	0811 841 510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서강대(이철우)	08121177399
서울대(정무웅)	797 5959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숭실대(김학수)	0811 879 701
아주대(서보상)	0815 1902 4220
연세대(금민철)	0816 864 677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7
영산대(최재혁)	590 0401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이화여대(김미송)	0811 122 0566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중앙대(최일형)	0813 1129 8822
충남대(노제익)	452 6968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한국외대(최재광)	0811 968 478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한양대(신승호)	0813 8981 5656
ROTC(사무국장: 김성일)	0811 805 606
육군학사장교(김상진)	0812 8779 9035

# S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 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진주가 되겠습니다.






-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최대 93% 환매보장 ◆ 순금 매입·매각 가능
- ◆ 순금 가공 가능(회사로고, 행운의 열쇠, 골프공 등 원하시는 형태)
-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셋트(다이아, 진주)
- ◆ 최상품 게르마늄 건강팔찌 및 목걸이 판매

**갤러리(위자이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62-21-7278-8327 HP. +62-888-110-2022

**수출·무역**

HP. +62-816-873-176, +62-816-1390-333  
E-mail. 3sppearl@hanmail.net  
+82-10-5509-7751, +82-10-9824-8857



# 문화회관 - 나를 위한, 나만의 공간

## 이용안내

아담하고 쾌적한 공간!

평소에 읽고 싶었던 좋은 책들과  
차 한 잔의 여유를 음미하면서  
한인회 문화회관을  
나만의 독서실로 이용하세요.

시청각실과 소규모 모임을 위한 장소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 시 간

월~금요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토요일 :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 대 상

한인회 회원증 소지자  
(회원 가입은 한인회사무국으로 문의하세요)

### 대 여

1. 회원증 사본 제출
2. 1인당 도서 2권, 7일간
  - 1회에 한하여 7일간 전화로 연기 가능
  - 연체 시 대출정지 또는 1일 1책 당 1,000루피아 부과
  - 분실 시 실비 변상



# 재인도네시아 지역한인회

현재 2022. 08

번호	지역한인회	직 위	성 명	휴대폰
1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0812-1960-308 ]	회장	박 재 한	0816-825-931
		사무국장	최 인 실	0812-9881-6816
2	발리한인회 [ 0822 1996 3355 ]	회장	김 동 수	0811-394-551
		수석총무	김 성 희	0811-398-976
3	반둥한인회 [ 022) 200-2154 ]	회장	편 대 영	0813-2145-7997
		사무국장	박 병 봉	0813-2150-5500
4	케프리주 바탐 한인회	회장	공 자 영	0811-691-826
		총무	윤 진 만	0857-7825-6241
5	보고르한인회	회장	(공석)	
		총무	임 성 필	0819-707-107
6	메단한인회	회장	홍 재 권	0812-8219-8638
		총무	안 의 현	0811-614-5469
7	수까부미한인회	회장	김 흥 기	0811-980-337
		부회장	최 종 섭	0811-114-2163
8	동부자바(수라바야) 한인회 [ 031) 568-8690 ]	회장	이 경 윤	0817-321-833
		사무국장	이 대 섭	0812-1767-9007
9	중부자바(스마랑) 한인회 [ 024) 7648-2020 ]	회장	채 환	0822-2021-5725
		사무총장	류 종 범	0812-2662-0902
10	족자카르타한인회	회장	유 치 호	0813-9251-5050
		총무	조 용 재	0815-4880-0256
11	즈파라한인회	회장	박 호 섭	0812-6666-3338
		사무총장	조 영 성	0813-9032-3355
12	땅그랑반뜰한인회	회장	채 만 용	0813-8621-5850
		사무국장	허 미 숙	0821-8166-6137
13	마카사르술라웨시 한인회	회장(권한대행)	한 정 곤	0811-419-200
14	룸복 한인회	회장	박 태 순	0812-378-9841
		총무	이 용 구	0812-3810-4649
15	칼리만탄 한인회	회장	나 성 문	0811-506-4579
		사무총장	윤 상 원	0811-899-0101
16	찌까랑 한인회	회장	안 윤 근	0812-8164-8333
		사무총장	송 영 한	0812-902-6148

www.sticorp.co.kr

THEP

TRASINDO

SAMINDO

STI Indonesia

PSG

CEP

# ST International

Synergy for Tomorrow

삼탄이 ST International 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SBS

DONGHAE

SIMS

Yeong Yang Wind Power

MINTEC

SRT

SRT

ABM

KIDECO